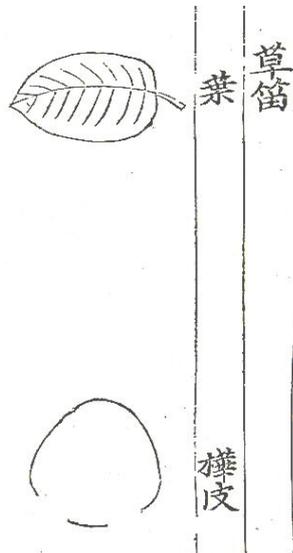


환경교육 현장 활동가를 위한  
**풀피리 (자연악기) 지도력**  
**전수프로그램**



주최 /  풀빛문화연대

후원 /  KYOBO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연구지원 /  사단법인 산림문화콘텐츠연구소

## ■ 차례 ■

1. 사업명
2. 사업목적
3. 사업의 취지 및 필요성
4. 사업개요(3p)
5. 참가자 명단(4p)
6. 사업내용
  - 1) 플피리 전수 교육과정(5p)
  - 2) 플피리 전수 일지(8p)
  - 3) 전수팀원 개인 조사활동 보고서(27p)  
※ 부분 발췌
  - 4) 강의자료(32p)
7. 종합평가
  - 1) 전수자 평가(52p)
  - 2) 플빛문화연대 프로그램 평가(57p)
  - 3) 종합적인 평가(59p)
8. 강의 수료자들의 추후 활동계획(61p)

# 환경교육 현장 활동가를 위한 풀피리(자연악기) 지도력 전수 훈련프로그램

풀빛문화연대

## 1. 사업명

환경교육 현장 활동가를 위한 풀피리(자연악기) 지도력 전수 훈련프로그램

## 2. 사업목적

이 사업은 환경교육 활동가(숲해설가, 자연안내자, 현장체험학습지도자 등)를 대상으로 풀피리(자연악기)지도력을 전수받고 훈련케 함으로써 **환경교육 현장체험 프로그램의 질적 차별성을 확보하고 활동가들의 전문역량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풀피리의 전통적 문화와 심미적 가치를 오늘날 환경교육의 현장에서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 3. 사업의 취지 및 필요성

학교나 사회단체, 직장 등에서 주 5일제가 확대 실시되면서 야외활동이나 체험 학습 등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수요와 맞물려 현장체험 환경교육 활동가의 숫자 역시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각급의 환경단체나 사회단체는 물론이고 자치단체, 평생교육원, 복지관 등에서는 환경교육 지도자를 길러내는 사회교육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야외체험 중심의 환경교육이 양적인 측면에서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통계적으로도 알 수 있지만, 그 활동가들의 진행방법과 프로그램의 질에 관한 검증은 아직 확인된 바가 없으며, 대개가 지식정보를 전달하는 교육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몇 가지 활동들을 모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현장체험교육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채 박제된 이론교육의 연장선상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환경교육의 현장체험 프로그램은** 이론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고 교육되어야 할 것이 아니며 분명히 **질과 형식이 다른 독자적인 교육 정체성과 창조적인 방법론에 따른 행위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장체험 환경교육의 정체성과 방법론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검증이 환경교육의 주체나 대상 등 모두의 측면을 통해서 이루어진 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분야로서 개척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현장체험 환경교육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방법은 결국 활동가들이 지속적인 검증을 통해 이루어 질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활동가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기존의 현장체험의 교육방법과 내용을 극복하여 질적 수준을 높이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화과정을 밟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현장체험 환경교육은 정형화된 교육적 접근보다는 비정형화 되고 즉흥적 요소를 배제할 수 없다는 기술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물론 기본적으로 야외 환경교육이 갖는 공통적 제약요소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강점이 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이러한 특성 속에서 현장체험 환경교육 전문가들이 교육정체성과 자긍심을 갖는 지도역량의 전문성이 자리 잡을 수 있다.

결국, 현장체험 환경교육 활동가들의 지도역량은 구체적이고 기술적이며, 따라서 장인적인 수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활동가들의 한결같은 결론이다. 우리는 이러한 인식을 배경으로 환경교육 전문가들의 현장체험 환경교육 전문성 획득을 위한 심화교육을 목표로 **풀피리(자연악기) 지도역량 전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하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환경교육이 이론이나 놀이 중심으로 이루어져 한때의 즐거움으로 사라지기보다는 **우리 조상들이 자연에서 즐겨 불고 자연스럽게 위에서 아래로 전해오던 풀피리의 문화적, 심미적 가치를 오늘날의 환경교육 현장에서 재창조 하여 보다 궁극적이고 실천적인 환경교육이 이루어지고자 하는데 의의를 둔다.**

#### 4. 사업개요

교육명	환경교육 현장 활동가를 위한 풀피리(자연악기) 지도력 전수 훈련프로그램
교육목적	환경교육과 체험예술의 창의적인 결합을 통하여 질적 차별성과 이를 통한 환경교육자들의 전문성 획득
교육주최	플빛문화연대
교육후원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연구지원	사단법인 산림문화콘텐츠연구소
교육기간	2005년 5월 3일 ~ 10월 17일 11월 25일(연수사업 보고회)
교육장소	풀피리 전수 (현장) - 포천 영평초등학교 / 국립광릉수목원
	풀피리 교육 (실내) - 플로엠티집
	풀피리 워크샵 - 함양(상림)/ 거창 금원산 자연 휴양림
	연수사업 보고회 -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회의실
교육대상	환경 교육자로 활동하고 있는 숲해설가, 자연안내자 등.
교육내용	풀피리 무형문화재 제38호 오세철 선생님께서 무형문화재로서의 삶과 전승예술에 대한 강의와 풀피리에 관한 기본주법과 연주법을 전수 받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승예술의 정신과 기술을 환경교육과 결합하는 방법에 대해 조사·연구한다.

5. 참가자 명단(\*초기 신청자 명단 이며, 이중 일부는 연수 중도 탈락하였음)

No.	이 름	이메일	직 업
1	김석우	treelover@empal.com	숲해설가
2	김지현	anarchkim@hanmail.net	숲해설가
3	양윤화	moesan@hanmail.net	숲해설가
4	조홍범	hongbcho@orgio.net	서경대학교 교수
5	박경순	pks-03@hanmail.net	숲해설가
6	김경희	bandi21@chol.com	분당 환경시민의 모임
7	박부희	vscarlet@hanmail.net	중랑천 지킴이
8	김은경	yucho7@hanmail.net	체험학습강 사
9	손희정	33918412@hanmail.net	중랑천 지킴이
10	이수진	sjpopato@hanmail.net	프리랜서 숲해설가
11	최경미	cgm0808@hanafos.com	체험학습강 사
12	이광호	tree3025@hanmail.net	숲해설가

## 6. 사업내용

### 1) 풀피리 연수 교육과정

#### ◆ 5월 교육 과정

날짜	연수과목	연수내용	강사	장소	비고
3일 (화)	◇오리엔테이션	◆ 필드워크 및 오리엔테이션	유영초 (풀빛문화연대 주간)	영평초등학교	현장답사 및 풀피리교육 워크샵
9일 (월)	◇풀피리 이론	◆ 풀피리의 역사와 현황 ◆ 자연체험과 전승예술의 접목	유영초 -실내	풀빛문화연대	봄 학기 오리엔테이션 포함
10일 (화)	◇풀피리 실습 ◇전승예술의 실제	◆ 무형문화재 특강 ◆ 무형문화재 연주 ◆ 풀피리의 방법론	오세철 (풀피리 무형문화재) / 유영초	영평초등학교	특강1 연주포함
17일 (화)	◇풀피리 실습 ◇풀피리와 현장체험 이론	◆ 풀피리 소리내기 ◆ 봄 피리 재료 탐구 ◆ 풀피리와 문학전통 ◆ 풀피리의 약기적인 분류	오세철 -전수 / 이광호 -현장	영평초등학교	교재/소재(비비추, 원추리, 민들레, 나뭇잎 등)
24일 (화)	◇풀피리 실습 ◇풀피리 교재 탐구	◆ 풀피리 소리내기 ◆ 봄 피리 재료 탐구 ◆ 풀피리 소재와 연습의 실제	오세철 -전수 / 이광호 -현장	영평초등학교	교재/소재(보리, 이갈나무, 병꽃나무, 나뭇잎 등)
31일 (화)	◇풀피리 실습 ◇풀피리와 현장체험 이론	◆ 풀피리 소리내기 ◆ 봄 피리 재료 탐구 ◆ 현장체험과 문화예술 ◆ 풀피리를 이용한 교육방법론	오세철 -전수 / 유영초 -실내	영평초등학교	교재

◆ 6월 교육 과정

날짜	연수과목	연수내용	강사	장소	비고
7일 (화)	◇폴피리 실습 ◇폴피리 교재탐구	◆ 폴피리 초급연주 ◆ 여름 폴피리 재료 탐구(필드워크) ◆ 폴피리와 현장체험 활동의 연계방안	오세철 (폴피리 무형문화재) / 박종숙 -현장	영평초등학교	교재 / 소재 (황매화, 갈대, 대사초, 버드나무 등)
14일 (화)	◇폴피리 실습 ◇폴피리와 현장 체험 이론	◆ 폴피리 초급연주 ◆ 여름 폴피리 재료 탐구(필드워크) ◆ 계곡 폴피리 종류탐사(필드워크) ◆ 폴피리 교육 프로그램의 적용방안	오세철 -전수 / 박종숙 -현장	영평초등학교	교재
21일 (수)	◇폴피리 실습 ◇폴피리 교재탐구	◆ 폴피리 초급연주 ◆ 여름 폴피리 재료 탐구(필드워크) ◆ 봄-여름 현장 자료조사, 체험정리	오세철 -전수 / 유영초	영평초등학교	교재
28일 (화)	◇폴피리 실습 ◇폴피리와 현장 체험 이론	◆ 폴피리 초급연주 ◆ 폴피리 교육 프로그램의 적용방안 ◆ 봄-여름 현장 자료 조사, 체험정리 보고서 작성 ◆ 상반기 활동 평가 및 정리	오세철 -전수 / 유영초	영평초등학교	교재

◆ 7월-8월 개인 연습 및 과제 수행

\* 과제 수행 자료 별도 첨부

◆ 9-10월 교육과정 // 11월 발표회

날짜	연수과목	연수내용	강사	장소	비고
9/9 (금)	◇폴피리 실습 ◇폴피리와 현장체험 이론	◆ 폴피리 초/중급연주 ◆ 가을 폴피리 종류 와 방법 ◆ 폴피리 현장체험 프 로그램 적용방안	유영초 (폴빛문화 연대 주간) / 박현숙-실내	폴로워은집	가을학기 오리엔 테이션
9/13 (화)	◇폴피리 실습 ◇폴피리 교재탐 구와 폴피리 현장 실습	◆ 폴피리 초/중급연주 ◆ 가을 폴피리의 자료 조사 및 채집 ◆ 폴피리와 문학	오세철 (폴피리무형 문화재) / 유영초	영평초등학교	교재 / 소 재 (밤, 호도, 도토리, 자작수피 등)
9/21 (수)	◇폴피리 실습 ◇폴피리 교재 탐구와 폴피리 현장실습	◆ 폴피리 초중급연주 ◆ 가을 폴피리의 자료 조사 및 채집	오세철 -전수 / 김지현 -현장	영평초등학교	
10/6 (목)	◇폴피리 실습 ◇고급과정	◆ 고급 폴피리연수1 ◆ 폴피리에 음계를 넣 는 법 ◆ 각종 자연악기 들어 보기 ◆ 놀이와 체험교육의 결합	양윤화 -실내	폴로워은집	
10/ 13 (목)	◇폴피리 실습 ◇고급과정	◆ 고급 폴피리연수1 ◆ 폴피리에 음계를 넣 는 법 ◆ 각종 자연악기 만들 어 보기 ◆ 놀이와 체험교육의 결합	양윤화 -실내	폴로워은집	
10/ 16일 (일) ~ 17일 (월)	◇폴피리 실습 ◇고급과정	◆ 전국폴피리불기대회 참가 ◆ 폴피리 연주 시연 ◆ 워크샵-폴피리와 환 경교육 ◆ 폴피리 전수와 향후 과제	심선옥	금원산 자연휴양림	
11/ 25일 (금)	◇발표 및 시연	◆ 폴피리 지도 역량 발 표회 ◆ 폴피리 작은 음악회		교보생명교육 문화재단	중강 평가회

2) 폴피리 연수 일지

교육주제	필드워크 및 오리엔테이션				
교육일시	2005. 5. 3 (화)	장 소	영평초등학교	교육인원	3명
강사	성명	성기봉			
	약력	포천 영평 초등학교 교무부장			
교육내용	<p>● 폴피리 전수를 위한 사전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중교육일정으로 계획했던 것을 일부 수정하여 상반기에는 현장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한 전수 팀을 조직하고, 전수역량을 집중적으로 배양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변경하다.</li> <li>- 현재 포천 영평 초등학교에서 ‘폴피리 특기적성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 오세철 선생님이 직접 전수를 나오신다. 폴빛문화연대 ‘폴피리 지도력 전수’팀과 공동으로 전수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다.</li> <li>- 교장선생님과 교무주임 선생님 ‘폴피리 특기적성반’ 학생들과 만나 앞으로 진행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전수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공유.</li> </ul> <p>→ 다음 주 화요일부터 매주 2시 - 4시에 포천 영평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폴피리 특기적성반’과 함께 오세철 선생님께서부터 폴피리를 전수받기로 함.</p> <p>● 폴피리 시범 및 연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기봉 선생님과 영평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폴피리 소리 내는 법에 대해 배움. 성기봉 선생님의 연주를 감상.</li> </ul>				
준비물	—		참고자료	—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앞으로 영평 초등학교에서 특기생들과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 할지 정확한 커리큘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li> <li>- 폴피리는 일반적인 예체능학습과 달리 교육방법이나 커리큘럼이 없고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곳도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현장 도제식 전수과정을 통해 커리큘럼을 편성해 나가야 하는 특이성을 갖고 있다.</li> </ul>				

교육주제	플피리 이론				
교육일시	2005. 5. 9 (월)	교육장소	플빛문화연대	교육인원	10명
강사	성명	유영초			
	약력	플빛문화연대 운영주관			
교육내용	<p>● <b>플피리의 역사와 현황</b></p> <p>- 플피리는 가공이 필요 없는 자연악기이므로 인간과 식물이 교감하는 역사의 기원과 거의 궤를 같이 할 것이다. &lt;해동역사&gt;에 기록이 남아있으며, 중국에서도 당 시대의 &lt;통전&gt;에 취엽이 등장한다.</p> <p>- 플피리를 궁정에서 사용하였다는 가장 확실한 고고학적 자료는 사천 성 성도의 오대 전축 황제 왕건 묘의 24폭 부조 중에 취엽기에 나타나있다.</p> <p>- 우리나라는 &lt;악학궤범&gt;을 통해 플피리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진다. 이 문헌은 초적의 재료나 연주법 등을 기록한 문헌으로 한국음악을 기록한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p> <p>- 현대에 들어서는 플피리가 대중적으로 전수되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문학이나 음악에서 플피리의 음색이나 정서를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 전수자들에 의해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p> <p>● <b>자연체험과 전승예술의 접목</b></p> <p>- 자연체험과 환경교육이 사회적인 교육과제로 등장하면서 다양한 콘텐츠의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우리 전통은 생태적 삶의 양식과 문화가 배어 있음에도, 아직까지 전통예술과 놀이 등에서 자연체험과 환경교육의 소재들을 발굴, 응용하는 노력들이 부족하다.</p> <p>- 플피리는 전승예술일 뿐 만 아니라, 중요한 생태교육이자 자연체험이다. 플피리를 볼어보는 것은, 플피리의 소재인 자연물에 대한 이해와 교육이 수반되고, 더불어 예술체험과 자연체험활동이 된다. 플피리 뿐 만이 아니라, 다른 전승되고 있는 놀이와 공작 등도 향후 예술체험과 환경교육이 접목되는 매개로 연구 개발할 필요가 있다.</p>				
준비물	-	참고자료	플피리 전승예술 조사연구		
평가	<p>- 플피리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앞으로 전수와 더불어 자연체험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던져주었다.</p> <p>- 플피리는 환경교육의 문화적 소재이며 향후 환경문화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역사적 현실적 당위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p>				

<b>교육주제</b>	풀피리 실습/ 전승예술의 실제				
<b>교육일시</b>	2005. 5. 10 (화)	<b>교육장소</b>	영평초등학교	<b>교육인원</b>	10명
<b>강사</b>	성명	오세철			
	약력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8호 풀피리 예능 보유자			
<b>교육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형문화재 특강(life story를 중심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형문화재 제38호 오세철 선생님께서 풀피리를 접하게 된 이야기. (1971년 황해도 사람에게 초적을 배운 전금산 선생님께서로부터 전수받음)</li> <li>- 풀피리를 연습하면서 어렵고 힘들었던 점 (아카시아 잎을 사용. 잎이 무릎에 쌓일 정도로 연습함)</li> <li>-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오세철 선생님의 생각과 관점</li> <li>- 앞으로 문하생에게 바라는 점과 당부</li> </ul> </li> <li>● 풀피리 무형문화재 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지방 아리랑 / 청성곡 / 대중가요 등</li> </ul> </li> <li>● 풀피리의 방법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풀을 고르는 방법</li> <li>- 풀을 잡는 방법</li> <li>- 풀을 입에 대는 방법</li> <li>- 풀을 입에 대고 소리 내는 방법</li> </ul> </li> </ul>				
<b>준비물</b>	비비추, 복숭아, 개나리 잎		<b>참고자료</b>	풀피리전승예술 조사연구	
<b>평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풀피리 전수가 정형화된 틀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려운 점이 있다.</li> <li>- 개인의 연습량이 풀피리 소리내기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므로 실력의 차등이 클 것으로 보인다.</li> <li>- 전수생이 많지 않아 일대일 전수 방식이 가능하며, 비교적 효과적이다. 그러나 전수생들이 생각했던 것 보다, 풀피리 소리 내는 것이 쉽지 않아 첫 단계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li> </ul>				

<b>교육주제</b>	풀피리 실습 / 풀피리와 현장체험이론				
<b>교육일시</b>	2005. 5. 17 (화)	<b>교육장소</b>	영평초등학교	<b>교육인원</b>	10명
<b>강사</b>	성명	오세철 / 이광호			
	약력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8호 풀피리 예능 보유자 / 숲해설가			
<b>교육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풀피리 소리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자 잎을 채취해서 소리를 내다. 단순하고 원시적인 소리라도 불러 본다.</li> </ul> </li> <li>● 봄 피리 재료 탐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전에 광릉수목원에서 봄에 가능한 풀피리소재를 중심으로 식생을 조사 관찰하다.</li> <li>- 영평초등학교 뒷산과 그 일대를 중심으로 식생을 알아보고 직접 소리를 내본다. 잎의 특징과 소리의 음을 알아보다</li> </ul> </li> <li>● 풀피리와 문학전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적으로 풀피리는 어떠한 정서를 내포하고 있으며 그것이 문학을 통하여 어떻게 발현되는지 여러 문학작품을 통해서 알아보다. (한하운의 「버들피리」, 이성부의 「서둘지 않게」, 이승하의 「당신이 내 앞으로 걸어오면」 등의 작품)</li> </ul> </li> <li>● 풀피리의 악기적인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재를 통하여 풀피리의 악기적인 분류에 대해 공부하다.</li> <li>- 악학계법을 통해 풀피리가 하나의 정통악기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배우다.</li> <li>- 소리가 난다고 하여 모두 악기라고 분류할 수는 없지만, 그 소리를 즐길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악기가 될 수 있다. 즉, 어떠한 소리를 음악에 사용하면 그것은 곧 악기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난타가 있다</li> </ul> </li> </ul>				
<b>준비물</b>	비비추, 원추리, 민들레 잎	<b>참고 자료</b>	풀피리 전승예술 조사연구		
<b>평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봄에 볼 수 있는 풀을 함께 조사함으로써 풀에 대한 특징을 세밀하게 알 수 있으며, 풀피리에 대한 이론적 결합으로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하다.</li> <li>- 풀피리를 악기적 특징으로 분류해서 소리내기를 시도하는 것도 좋은 음악교육이자 환경교육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li> </ul>				

교육주제	폴피리 실습 / 폴피리 교재탐구				
교육일시	2005. 5. 24 (화)	교육장소	영평초등학교	교육인원	5명
강사	성명	오세철 / 이광호			
	약력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8호 폴피리 예능 보유자 / 숲해설가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폴피리 소리내기 (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폴을 바르게 잡고, 폴을 바르게 입에 대고, 소리 내는 법 등에 대해 오세철 선생님께서부터 직접 전수를 받음.</li> <li>- 폴잎 혹은 나뭇잎의 앞뒷면의 방향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잎맥이 밖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좋으나, 실력이 쌓이면 양방향 관계없다는 것을 설명함.</li> </ul> </li> <li>● 봄 피리 재료 탐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릉수목원에서 봄 피리 재료 탐구(떨어진 잎 이용)</li> <li>- 봄에 새로 난 여러 가지 잎들을 따서 입에 대어 붙어보면서 폴과 소리의 상관관계에 대해 공부함.</li> </ul> </li> <li>● 폴피리 소재와 연습의 실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추리, 민들레 등의 잎을 이용하여 폴피리를 붙어봄.</li> <li>- 잎의 두께와 잎의 질감 등에 따라 소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 어느 것이 폴피리에 더욱 적합한 폴인지 알아봄.</li> </ul> </li> </ul>				
준비물	원추리 민들레 잎	참고자료	폴피리 전승예술 조사연구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재를 통해 폴피리에 관하여 이론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li> <li>- 개인의 연습량에 따라 소리가 나므로 현장에서 모든 것을 습득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li> <li>- 잎을 손에 쥐고, 손가락 넓이를 조절하고, 입술에 대는 위치, 잎맥을 찾아내는 방법은 전수생 모두가 이제 바르게 익히고 있다.</li> </ul>				

<b>교육주제</b>	폴피리 실습 / 폴피리와 현장체험이론				
<b>교육일시</b>	2005. 5. 31 (화)	<b>교육장소</b>	영평초등학교	<b>교육인원</b>	3명
<b>강사</b>	성명	오세철 / 유영초			
	약력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8호 폴피리 예능 보유자			
<b>교육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폴피리 소리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습한 것 오세철 선생님과 테스트</li> <li>- 비비추 등으로 폴피리 소리내기 연습</li> </ul> </li>   <li>● 봄 피리 재료 탐구 (광릉수목원 일대에서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비추, 개나리 잎이 소리내기에 좋다.</li> <li>- 비비추를 불 때는 잎맥을 입술과 나란히 하여 부는 게 효과적이다</li> </ul> </li>   <li>● 현장체험과 문화예술 <p>현장체험은 그자체로 생태적 감수성과 환경적 마인드를 형성해가는 포괄적 의미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다. 자연환경은 기초예술분야의 원천적 소스이며 체험을 통해서 문화예술적 상상력을 제공받는다. 폴피리는 현장체험과 문화예술의 접점이다.</p> </li>   <li>● 폴피리를 이용한 교육방법론</li> </ul>				
<b>준비물</b>	비비추, 복숭아, 개나리 잎		<b>참고자료</b>	폴피리 전승예술 조사연구	
<b>평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러 가지 잎으로 소리를 내어보고 바람이 세는 소리가 아니라 정확하게 마찰음이 나도록 지도 (거울을 보면서 연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 얇은 잎은 마찰음을 내는데 수월하지만 높은 음만 낼 수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으며, 두툼한 잎을 통해 높은음과 낮은음의 넓은 음폭을 조절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움</li> </ul>				

<b>교육주제</b>	폴피리 실습 / 폴피리 교재탐구			
<b>교육일시</b>	2005. 6. 7(화)	<b>교육장소</b>	영평초등학교	<b>교육인원</b> 6명
<b>강사</b>	성명	오세철 / 박종숙		
	약력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8호 폴피리 예능 보유자 / 숲해설가		
<b>교육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폴피리 초급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요 &lt;학교종&gt; &lt;비행기&gt; &lt;송아지&gt; 등 쉬운 가락을 중심으로 폴피리를 연주해 봄.</li> </ul> </li> <li>● 여름 폴피리 재료 탐구 (광릉수목원 일대에서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복숭아잎/ 진달래/ 개나리 잎 등이 불기에 좋다</li> <li>- 얇은 잎은 소리가 잘 나지만, 오랫동안 불기에는 적합하지 않다</li> </ul> </li> <li>● 폴피리와 현장체험활동의 연계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체험활동은 실내의 환경교육과 달리 참여자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프로그램이 중심이 되어야한다. 그런 점에서 폴피리는 현장체험활동의 가장 좋은 주제와 소재가 된다. 숲 해설 프로그램 내에서 지식정보, 문화적인 정보와 함께 심미적인 체험의 형태로 폴피리를 가르치고 연주하는 것은 현장체험활동을 극대화 할 수 있다.</li> <li>- 생태교육자는 폴피리를 통해서 참여자의 체험이 오감을 통해서 인식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채취와 가공과 연주까지 연계하여 수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물론 현장체험활동의 경우는 그 참가자의 수와 인도자의 역량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지는 것을 중시해야한다.</li> </ul> </li> </ul>			
<b>준비물</b>	비비추, 복숭아, 개나리 잎	<b>참고자료</b>	폴피리 전승예술 조사연구	
<b>평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릉수목원에서 자료조사활동 및 식생조사활동이 이루어지므로 폴피리와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자연스러운 연계가 이루어졌다.</li> <li>- 연습을 하고 있는 동안 체험학습을 나온 아이들이 폴피리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인다. 실제 전수를 가기 전 이러한 필드워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li> </ul>			

<b>교육주제</b>	폴피리 실습 / 폴피리와 현장체험이론				
<b>교육일시</b>	2005. 6. 14 (화)	<b>교육장소</b>	영평초등학교	<b>교육인원</b>	6명
<b>강사</b>	성명	오세철 / 박종숙			
	약력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8호 폴피리 예능 보유자 / 숲해설가			
<b>교육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폴피리 초급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쉬운 동요를 중심으로 음을 내어봄.</li> <li>- 소리가 잘 나지 않지만, 음계를 잡아봄.</li> <li>- 비교적 소리가 잘 나는 얇은 잎을 이용하여 먼저 자신감을 얻음.</li> </ul> </li> <li>● 여름 폴피리 재료 탐구/ 계곡 폴피리 종류 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정부 '무지랭이골'에서 필드워크를 실시함</li> <li>- 계곡이 있어 계곡 근처에서 채취할 수 있는 폴피리에 관한 조사를 함.</li> <li>- 개복숭아, 버드나무 잎 등</li> </ul> </li> <li>● 폴피리 교육 프로그램의 적용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폴피리의 생태적 문화적 면모를 접목시켜 하나의 심미적 가치로 적용하는 방법과 그 심미적 가치를 흥미로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li> </ul> </li> </ul>				
<b>준비물</b>	비비추, 개복숭아, 버드나무, 개나리 잎		<b>참고자료</b>	폴피리 전승예술 조사연구	
<b>평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곡이 있는 곳에서 야외체험을 통해 보다 넓은 폴피리 자료 조사가 가능하다. 물가나 습한 곳에서 자라는 식물들에 대해 파악하고, 개복숭아나 버드나무 잎들이 가진 폴피리 재료로서 좋은 조건을 파악할 수 있었다.</li> <li>- 쉬운 동요를 붙어보며 음을 잡아내는 입술의 위치, 혀의 위치, 잎의 팽팽함에 강약을 더하는 손끝의 감각을 익혀갈 수 있다.</li> <li>- 처음에 전수를 시작할 때 두터운 잎, 잔털이 많은 잎, 거치가 불규칙적이거나 톱니모양인 것은 폴피리 소리가 나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는데, 다양한 풀을 조사하고 정리하고 직접 연주해 보는 활동을 통해, 모든 풀은 소리가 나고 단지 음량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의 차이란 것을 알게 됐다.</li> </ul>				

<b>교육주제</b>	풀피리 실습 / 풀피리 교재탐구				
<b>교육일시</b>	2005. 6. 21 (화)	<b>교육장소</b>	영평초등학교	<b>교육인원</b>	5명
<b>강사</b>	성명	오세철 / 유영초			
	약력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8호 풀피리 예능 보유자			
<b>교육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풀피리 초급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세철 선생님의 연주 시범 후 선생님의 음계를 따라 함께 붙어봄.</li> <li>- 음정이 정확하지 않아도 의지를 갖고 함께 따라서 붙어야 함</li> </ul> </li> <li>● 여름 풀피리 재료 탐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릉수목원 일대에서 진행함</li> <li>- 아까시나무 잎, 등나무 잎 등으로 풀피리를 붙 수 있음.</li> </ul> </li> <li>● 봄-여름 현장 자료 조사, 체험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봄에는 주로 비비추 잎과 개나리 잎을 사용해 풀피리를 붙.</li> <li>- 여름에는 개복숭아 아까시나무 잎 등나무 잎을 이용해 풀피리를 붙.</li> <li>- 얇은 잎은 상대적으로 소리가 잘 나지만 오랫동안 연주하기에는 힘이 없고 잘 찢어짐.</li> <li>- 초보자가 연주하기에는 비비추등의 두꺼운 잎은 어렵지만, 처음에 두꺼운 잎으로 연습을 하면 호흡이나 기술면에서 다른 잎들도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음.</li> <li>- 개인 연습이 풀피리를 연주하는데 관건이다. 소리가 잘 안 나지만 실망하지 말고 계속 연습을 해야 한다고 당부함.(오세철선생님)</li> </ul> </li> </ul>				
<b>준비물</b>	아까시나무잎, 등나무잎, 쥐똥나무잎 등	<b>참고자료</b>	풀피리 전승예술 조사연구		
<b>평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러 가지 잎으로 소리를 내어보고 바람이 새는 소리가 아니라 정확하게 마찰음이 나도록 지도하였다.</li> <li>- 풀피리 연주는 개인의 음악적 역량과 관계가 많다. 예를 들어 우리소리를 하는 사람은 더 깊이 있는 우리소리 풀피리연주가 가능하지만, 음정이 바르지 못한 사람은 풀피리에서 바른 음정을 찾아내기가 어렵다. 음을 잡아내는 전수생이 늘어가고 있으며 개인의 음색차이에 따라 풀피리 연주 음색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배운다.</li> <li>- 오세철 선생님의 life story와 더불어 전수가 진행되어 풀피리를 이해하는데 더욱 도움이 된다.</li> </ul>				

<b>교육주제</b>	풀피리 실습 / 풀피리와 현장체험 이론				
<b>교육일시</b>	2005. 6. 28 (화)	<b>교육장소</b>	영평초등학교	<b>교육인원</b>	7명
<b>강사</b>	성명	오세철 / 유영초			
	약력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8호 풀피리 예능 보유자			
<b>교육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풀피리 초급연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자 가장 자신 있는 음을 내어봄.</li> <li>- 얇은 잎을 이용해 소리를 내어보고, 자신감을 얻음.</li> </ul> </li> <li>● <b>풀피리 교육프로그램의 적용방안</b> <p>풀피리는 전승예술 중에서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고도의 숙련을 거친 경우는 그 어떤 장르보다 뛰어난 예술을 향유할 수 있다. 풀피리는 생태교육의 한 축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예술 교육의 특면에서 접근 할 수도 있음을 공부함.</p> <p>생태교육 프로그램으로서는 풀피리 소개와 생태 문화적 특징을 통해서 교육 커리큘럼으로 적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예술교육의 측면에서는 풀피리 연주의 향유와 직접 연주하는 방법을 배우는 커리큘럼을 통해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함께 진행될 수 있는 독자적인 생태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서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p> </li> <li>● <b>상반기 활동 평가 및 정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꾸준히 연습해야 함을 강조.</li> <li>- 상반기 활동을 정리하고 마무리 하는 의미로 영평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자연놀이를 진행. 어린이 대표, 어른 대표로 풀피리 연주 실력 겨룸</li> </ul> </li> </ul>				
<b>준비물</b>	비비추, 복숭아, 개나리 잎	<b>참고자료</b>	풀피리 전승예술 조사연구		
<b>평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들과 함께 나누며 풀피리를 전수받아 어린이와의 대화, 풀피리에 대한 이야기 등의 경험은 나중에 현장에서 발휘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li> <li>- 개인의 연습량에 따라 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 소리를 낼 줄 아는 사람/ 음계를 넣어 연주가 가능한 사람 등으로 나눌 수 있다.</li> <li>- 흔히 풀피리 연주하면 단순하게 삐~ 하는 음을 내는 것으로 알고 시작했던 전수생도 많고, 그렇게 알고 있는 활동가들도 많다. 그리고 체험교육의 현장에서 삐~ 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도 긍정적 파급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li> <li>- 풀피리가 음계를 갖고 음악을 연주 할 수 있는 전통적인 악기로서 인식되게 하는 것 그러한 풀피리 문화를 체험교육의 현장에 보급 전파시키는 것이 이번 풀피리 지도력 전수 사업의 의의이다. 전수생들은 이점을 다시 한 번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방학 중 과제를 확인하며 상반기 활동을 마무리 했다.</li> </ul>				

교육주제	풀피리 초중급 연주 / 가을 풀피리 종류와 방법				
교육일시	2005. 9. 9. (수)	교육장소	플로엣은집	교육인원	8명
강사	성명	유영초 / 박현숙			
	약력	풀빛문화연대 운영주간 / 숲해설가			
교육내용	<p>● 풀피리 초중급 연주(실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학 기간 동안 연습했던 곡을 불러본다.</li> <li>- 소리가 나지 않던 사람들이 ‘뿅-’ 소리가 났다. 연주 실력이 나아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li> <li>- ‘아리랑’ ‘학교종’ 등 각자 가장 자신 있는 곡을 연주함. 그리고 풀피리에 관한 대답을 나눔.</li> </ul> <p>● 가을 풀피리의 종류와 방법</p> <p>경희궁에서 자라는 아까시, 개나리, 비비추 등의 잎을 가지고 서로 불러본다. 처음보다 음을 분석하는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봄이나 여름보다 잎이 두꺼워 지고 시들어 가기 때문에 야생의 풀잎으로 풀피리를 부는것이 어려워질 수 있으나,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은 풀잎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p> <p>아까시 잎도 얇아서 불기에 좋았지만, 지금은 잎이 두꺼워져서 소리가 잘 안 나는 잎도 있다. 고추 잎은 얇아서 소리가 잘 나며, 깨 잎 비슷한 잎 역시 향도 좋고 소리 내기에도 무리가 없었다. 실내의 잎으로는 스파트 필름, 스킨 등이 소리내기에 좋다.</p> <p>● 풀피리 현장체험 프로그램 적용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풀피리를 사용했을 때의 반응에 대해 나눔.</li> </ul> <p>: 아이들의 집중도가 높아지며, 흥미를 많이 갖는다. ‘뿅-’소리 하나만으로도 만족을 느끼며, 직접적인 자연체험이 되어 인기가 좋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풀피리를 배우며 느낀 것이나, 생각했던 점들을 서로 나눔.</li> </ul> <p>: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고, 우리의 정서에 맞는다. 그러나 배우는 것이 쉽지 않고,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p>				
준비물	비비추, 개나리, 아까시 잎	참고자료	풀피리 전승예술 조사연구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 달여간의 방학기간 동안 각자 나름대로 풀피리 연습.</li> <li>- 과제 수행은 20% 이며, 과제 수행에 어려움을 호소함.</li> <li>- 나누기 시간을 통하여 서로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생각을 표현함으로써 서로간의 친밀도나 이해도가 높아짐.</li> <li>- 풀피리 전수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나눔으로써 앞으로 풀피리 전수와 환경교육에 대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이어짐.</li> <li>- 풀피리 전수가 어려운 일이지만, 유의미한 일임을 모두 인식하고 대중적 교육의 필요성과 풀피리를 통한 환경문화의 트렌드 조성을 강조함</li> </ul>				

교육주제	폴피리 초중급연주(실습)/ 가을 폴피리의 자료조사 및 채집				
교육일시	2005. 9. 13. (화)	교육장소	영평초등학교	교육인원	7명
강사	성명	오세철 / 유영초			
	약력	경기도 무형 문화재 제38호 폴피리 예능 보유자			
교육내용	<p>● 폴피리 초중급 연주(실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세철 선생님과 영평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동요 메들리를 같이 연주.</li> <li>- 아리랑, 홀로아리랑, 섬집야기 등을 연주 할 수 있음.(음정이 정확하지는 않으나 듣는 사람이 음에 공감할 수 있다.)</li> </ul> <p>● 가을 폴피리의 종류와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비추 잎은 거의 마르고 시들어 어린잎이 아니면 폴피리를 연주하기 어렵다. 그리고 비비추 잎은 두꺼워 초보자들이 불기에 어렵다. 하지만, 처음부터 비비추 잎으로 연주를 하면 호흡이 좋아져 후에는 어느 잎으로든 연주가 가능하다. 처음에 자신감을 얻고자 한다면, 얇은 잎으로 연습을 하는 것이 좋지만, 더 좋은 연주를 위해서라면 비비추로 꾸준히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다.</li> <li>- 청미래 잎은 잎이 얇아 소리가 잘 나지만, 잎을 뜯으면 쉽게 시들거나 찢어져 좋은 연주를 하기에는 어렵다. 그러나 소리를 내 자신감을 얻고 싶다면, 청미래 잎이나 쥐똥나무 잎으로 먼저 소리를 내는 것도 좋다. 현장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단시간 안에 소리를 내고자 한다면 쥐똥나무 잎이 적절할 것 같다.</li> </ul>				
준비물	개나리, 복숭아, 진달래 잎	참고자료	폴피리 전승예술 조사연구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폴피리는 연습량이 중요. 연습을 많이 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li> <li>- 폴피리 소리가 뜻대로 안되니 계속 흥미를 잃게 된다.</li> <li>- 현장체험에서 폴피리 하나가 얼마나 큰 가치를 갖고 있는 가는 인식을 하지만 전승예술은 특유의 관심과 흥미가 없이는 이어 나가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그럴수록 자연 속에서 아이들과 많이 만나 활동하는 숲해설가들이 폴피리 등의 전승예술에 흥미를 갖고 활동한다면 보다 양질의 숲해설과 환경교육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li> <li>- 또한 숲해설가들을 양성하는 단체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전승예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방법론과 실천론에 대해 연구한다면 좋을 것이다.</li> </ul>				

교육주제	폴피리 초중급 연주/ 가을 폴피리 자료조사 및 채집				
교육일시	2005. 9. 21. (수)	교육장소	영평초등학교	교육인원	5명
강사	성명	오세철 / 김지현			
	약력	경기도 무형 문화재 제38호 폴피리 예능 보유자 / 숲해설가			
교육내용	<p>● 폴피리 초중급 연주(실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랫입술을 평평하게 하고 윗입술을 조금 앞으로 내민다. 윗입술에 잎의 가장자리가 가볍게 닿도록 손가락으로 댄다. 이 때 잎이 조금만 바깥으로 둥글게 되도록 윗입술에 댄다.</li> <li>- 즉 둥글게 말린 잎의 가장자리가 윗입술 밑에 오도록 한다. 단 잎이 휘어지면 안 된다. 손가락에 힘을 주면 잎이 쉽게 찢어지므로 주의한다.</li> <li>- 윗입술과 둥글게 된 잎 사이에서 가늘게 숨을 내쉴다. 숨의 강도는 보통 숨 쉴 때와 마찬가지로 내며 너무 세거나 약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li> <li>- 나뭇잎 외에도 꽃잎을 사용하여 가볍게 숨을 내쉬면 간단하게 소리를 낼 수도 있다.</li> <li>- 숨을 내쉴 때 불이 부풀어지지 않도록 주의, 힘을 주면 안 됨.</li> <li>- 소리가 잘 날 수 있도록 자신이 잎을 입에 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리를 내어 본다.</li> <li>- 매일 꾸준히 시간을 정해두고 연습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단 10분이라도 폴피리 불기에 투자를 한다면 곧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당장에 소리가 나지 않아 흥미를 잃는다면 다시는 폴피리를 불 기회는 오지 않는다.</li> <li>- 오세철 선생님은 지금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한 시간씩 연습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신다.</li> </ul>				
준비물	등나무, 청미래, 쥐똥나무잎 등.	참고자료	폴피리 전승예술 조사연구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꾸준한 연습이 중요하며, 개인차가 크게 난다.</li> <li>-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폴피리 전수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만, 개인이 의지를 갖고 폴피리를 꾸준히 연습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곡은 정확한 음정으로 연주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li> <li>- 기초적인 자세부터 다시 배우고, 자세 교정을 하여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었다.</li> </ul>				

<b>교육주제</b>	폴피리 초중급 연주/ 가을 폴피리 종류와 방법				
<b>교육일시</b>	2005. 10. 6. (수)	<b>교육장소</b>	폴로 엮은 집	<b>교육인원</b>	5명
<b>강사</b>	성명	유영초 / 양윤희			
	약력	폴빛문화연대 운영주간 / 숲해설가			
<b>교육내용</b>	<p>● 폴피리 초중급 연주(실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뿅-하는 소리가 나는 사람들은 그 음이 안정적으로 날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을 해야 한다. 단순한 뿅-음 만으로는 연주를 하기 힘들며, 음을 길게 빼는 연습을 한다.</li> <li>- 음을 잘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음계 연습을 한다. 입을 입에 대고 불 때에 입을 약간 당겨보거나 느슨하게 해보며 여러 음을 내본다. 그리고 주법에 따라 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파악한다.</li> <li>- 입이 진동하는 면적이 크면 음은 낮아지고 작으면 높은 음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아주 미묘한 차이가 나므로 폴잎의 탄력을 조절하는 정도, 입으로 불어내는 바람의 세기와 입의 모양, 턱의 위치 등을 달리해가며 연습을 계속해야 한다.</li> <li>- 이렇게 하여 음정이 변화되는 것을 체득하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익도록 해야 한다. 꾸준하고 지속적인 연습에서 나온다.</li> <li>- 미세한 소리의 변화를 잘 잡아내야 한다.</li> </ul>				
<b>준비물</b>	아까시 잎, 깨 잎, 개나리 잎	<b>참고자료</b>	폴피리 전승예술 조사연구		
<b>평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폴피리 주법을 매뉴얼화 하는 시간이 되었다.</li> <li>- 전승예술이라는 것이 체계화 되어있지 못하여 대중적 전수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폴피리를 배우는 사람들이 모여 서로 폴피리를 불어보고 들어 주며 비록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보다 쉽게 그리고 이왕이면 더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주법과 그 매뉴얼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하는 시간이 중요하다.</li> </ul>				

교육주제	풀피리 초중급 연주/ 가을 풀피리 종류와 방법				
교육일시	2005. 10. 13. (목)	교육장소	풀로 엮은 집	교육인원	5명
강사	성명	유영초 / 양윤화			
	약력	풀빛문화연대 운영주관 / 숲해설가			
교육내용	<p>● 풀피리 초중급 연주(실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음에는 음정의 변화가 마음대로 되지 않겠지만, 미세한 소리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면 성공적이다.</li> <li>- 처음에는 단순한 음이 아름답게 나올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자신이 스스로 내는 음에 대해 느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li> <li>- 처음부터 거창한 연주를 바라지 않는 마음도 중요하다. 어렸을 때 불렀던 단순한 음정을 갖고 있는 동요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으며, 한국을 꾸준히 연습하는 것도 좋다.</li> <li>- 오세철 선생님은 메들리로 연주하도록 지도하신다.</li> <li>- 반복적으로 연습하면 반드시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li> <li>- 개인차를 자신이 자각하고 포기하지 말고 꾸준한 연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연습이 반복되지 않으면 다시 계단 아래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li> <li>- 언제 어디서나 연습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li> </ul> <p>● 각종 자연악기 만들어보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드는 방법은 ‘풀피리 전승예술 조사 연구’ 교재를 참고.</li> <li>- 직접 만들어 붙어보고 이것을 현장에서 활용하면 지금까지 흔히 행해지고 있는 자연물을 이용한 만들기와 같이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li> </ul>				
준비물	비비추, 개나리, 아까시 잎	참고자료	풀피리 전승예술 조사연구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풀피리는 풀잎으로만 부는 것 외에도 민들레, 버드나무 가지 등으로 만들어 볼 수 있다. 그것들은 단순히 뿅-소리를 내지만(간단한 음계는 연주도 가능하다고 함) 현장에서 함께 만들면서 문화적, 지식 정보적 차원의 교육이 더해진다면 더욱 효과적인 교육은 물론이고 또래집단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연놀이가 될 것이다.</li> </ul>				

교육주제	풀피리 초·중급 연주 / 가을 풀피리 종류와 방법				
교육일시	2005. 10. 16/17. (일/월)	교육장소	함양	교육인원	8명
강사	성명	유영초 / 심선옥			
	약력	풀빛문화연대 운영주관 / (사)산림문화콘텐츠연구소 연구원			
교육내용	<p>● 함양 물레방아축제 「전국풀피리불기대회」 참가  함양 물레방아축제 중 ‘전국풀피리불기대회’가 열려 전수자 참가 및 참관. 풀피리를 잘 부는 어르신들이 많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대회 참가자는 우리를 포함 5명 이었으며, 함양 지역민이 아닌 서울, 포천 지역에서 출전하였다. 포천지역에서 출전한 분들 역시 오세철 선생님께 전수를 받고 있는 그 지역의 초등학교 교사이다.</p> <p>● 풀피리와 환경교육  - 초등학교 특기적성 프로그램으로서의 풀피리  :: 위에서 아래로 전해오던 전수 방식이 현대에 오면서 사라지고, 풀피리를 전수하거나 교육 할 수 있는 교사의 부재</p> <p>:: 개인의 흥미와 노력에 따라서 무한 발전이 가능하지만, 노력에 따라 소리나 연주의 능력이 차이 나므로 처음에 품었던 흥미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어려움</p> <p>:: 초등학교 특기적성 반 운영이 강제적인 면이 많아 아이들의 호응을 얻기 어려운 점도 있으나, 개인적 흥미와 능력에 따라 상이함.</p> <p>:: 주의가 산만한 아이들이 풀피리에 흥미를 가지면서 수업 참여도가 높아진다.</p> <p>:: 풀피리는 중독성과 음식의 매력이 강하여 아이들로 하여금 흥미를 높일 수 있게 도와주고 오랜 시간에 걸쳐 연습을 한다면 정서적 측면이나 집중도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 . 생태적 리더십이 강조되고 있는 도심학교들의 경우 중요한 특기적성교육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됨</p>				

**- 환경교육 현장에서의 풀피리**

:: 환경을 주제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 중에 풀피리를 이해하고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풀잎 한 장으로 소리를 내고, 음을 연주할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짧게나마 보여주면 아이들의 호응과 집중이 높아진다.

:: 우선은 좋은 소리를 낼 수 없지만, 뿅-소리 하나에도 아이들의 감정이 움직이게 되며, 현장이 자신과 동화됨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 자신도 풀로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경험을 통해 즐거움을 얻고 소리가 나면 음을 연주하고 싶어 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 현장에서 당장 풀피리를 연주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은 안 되지만, 흥미를 이끌어 내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연을 친숙한 놀이의 공간으로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 현장 체험 활동가들이 이러한 전수에 흥미를 두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전통문화나 전승예술에 대한 철학과 자연, 삶과 연계하여 더욱 수준 높은 숲 해설이나 현장교육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 자연을 단순한 이론적 지식으로 해설하거나 전승되는 문화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한 전달은 일방적이고, 일회적일 수 있으나 풀피리와 같은 전승예술을 현장교육에 접목시킨다면, 억지로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없이 그 자체로 가장 중요한 현장체험이 될 것이다.

**● 풀피리 현장체험 프로그램 적용방안**

:: 풀피리로 여러 연주가 가능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풀피리를 만들고 붙어볼 수 있다. 그러한 것들이 단순히 뿅-소리에 그친다고 할지라도 풀피리를 만드는 체험, 재료에 대한 지식정보, 풀피리에 대한 문화적인 정보 등과 함께 할 수 있다면 현장체험의 내용과 활동

	<p>의 질을 높일 수 있다.</p> <p>:: 지금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연물을 이용한 공작활동에 풀피리를 소재로 더 하여 응용해 볼 수도 있다. (보리피리, 밤 피리, 민들레 피리, 벼들피리 등)</p> <p>:: 자연 속에서 명상과 더불어 숲 체험을 할 때에 풀피리 음악을 활용할 수 있다. 자연과 가장 가까운 소리를 내는 풀피리 음악과 명상을 한다면 효과가 클 것이며, 역시 심미적 이론적 내용이 첨가된다면 좋을 것이다</p> <p>:: 풀피리는 무엇보다 직접적인 자연체험 프로그램으로 자연을 대상화하기 보다는 나와 친숙한 공간으로 인식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무나 풀을 만나는 장소가 숲이건 길가의 가로수건 간에 우리는 나무와 풀을 항상 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나무와 풀이 단순한 장식품이나 가끔 한번 가는 야외체험 장소가 아닌 언제 어디서든 풀잎 한 장으로 풀피리를 연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나무와 풀, 그리고 숲에 보다 친근해 질 수 있다. 따라서 현재 풀피리를 연주할 수 있는 역량을 갖지 못해 풀피리를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풀피리의 문화적 가치와 이야기를 잘 풀어낸다면 함께 원시적인 차원의 뻉-소리를 내는 것으로도 현장에서 서로 잘 동화(同和)될 수 있을 것이다.</p>	
<p><b>준비물</b></p>	<p>옥잠화 잎, 스파트 필름(화분) 잎</p>	<p><b>참고자료</b> 풀피리 전승예술 조사연구</p>
<p><b>평가</b></p>	<p>:: 포천에서 현재 풀피리를 전수 받고 있으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도 하고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논의할 시간이 있어서, 제도권 내에서 진행되는 풀피리 전수이지만 풀피리가 아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며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풀피리 교육이 이뤄져야 할지 이야기 해 볼 수 있었다.</p> <p>:: 풀피리가 어느 곳, 어느 사람에게서 즐겨 불리고 있는지 찾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참여가 저조하고 대회 장소에 사람들도 많았지만, 풀피리 대회나 연주에 생소해 하는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풀피리를 전수하거나 대중화 하는 게 얼마나 중요</p>	

한지 알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 생소하지만, 듣는 사람 부는 사람 모두 흥미 있는 자리가 되었고, 지난 6개월 간의 노력이 이 같은 자리에서 빛을 발할 수 있게 되어 꾸준히 대회가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 풀피리를 배우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하여도 보다 질 높은 현장교육을 원하고 질 높은 현장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현재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했으면 한다.

### 3) 전수팀원 개인 조사 활동 보고서 (7~8월 개인조사활동 -부분발췌)

일 시	2005년 7월 17일 금요일	장소	낙성대
제출자	김 지 현		
<p>● 조사 내용 요약 정리</p> <p>* 풀피리란 : 풀피리는 '악학궤범'에서 초적(草笛), 초금(草琴)이라 하여 하나의 악기로 소개하고 있다.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고 연주법도 간단하여 누구나 소리를 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p> <p>* 잎 선택 방법 : 잎의 거치가 너무 굴곡이 심하지 않은 것을 고른다. 너무 마른 잎은 피하는 것이 좋다. 너무 얇은 잎은 소리 나기는 쉬우나 쉽게 찢어져 노래 연주하기에는 부적합하므로 약간의 두께가 있어야 하나 너무 두꺼우면 초보자들은 소리가 안나올 수 있으므로 적당한 두께의 잎을 고른다. 억새풀잎이나 대잎 등은 거칠어 베이기 쉬우므로 피하는게 좋다.</p>			
● 소재	● 소재의 특징	● 기타	
비비추	<p>-잎은 모두 뿌리에서 나오고 길이 10~15cm이다. 너비는 7~9cm 정도로 잎가장자리가 조금 꾸글꾸글하다.</p> <p>-잎자루에 날개가 있는데 뿌리 쪽으로 갈수록 점점 희미해진다.</p> <p>-꽃은 연보라색이고 한쪽으로 줄지어 핀다. 어린잎을 나물로 먹는다.</p> <p>-잎이 두꺼워 풀피리 초보자는 소리 내기 어려우나 3-4시간 연속적으로 소리를 낼 수 있어 곡 연주로 용으로 적합하다.</p>		
<p>● 소감</p> <p>- 새롭게 알게 된 사실/ 느낌/</p> <p>오세철 선생님은 예전에 풀피리를 한참 연습할 때 아카시잎이 무릎에 수북히 쌓일 정도였다고 하셨습니다. 소질이나 천재성보다 노력, 연습의 정도가 중요하다는 뜻이다.</p> <p>요즘은 숲에 나가면 먼저 풀잎을 한 장 떼어내서 잎에 대본다. 놓지 않고 꾸준히 하다보면 잘 되리라 믿는다. 열심히 해야겠다.</p>			

일 시	2005년 8월 4일 수요일	장 소	정독도서관
조사 주제	풀피리와 문학 예술에 대한 조사		
제출자	김지현		
● 조사 활동 보고			
<p><b>* 풀피리 (김시림 작사/이충자 작곡)</b></p> <p>마음으로 천만번도 더 만난 이어      끝없는 길을 가듯 아련한 사랑아      어이해 나도 몰래 사랑을 알아      온 산을 물들이며 꽃을 피웠네      나 홀로 봄 언덕에 풀피리 불어 본다      민들레야 내 사랑을 멀리 멀리 뿌려다오      당신이 하신 말씀 가만 가만 들리도록      초록빛 그리움을 홀로 울리라</p> <p>내 가슴에 나무들이 새 손을 띄우는 봄      아버지는 기차길에 제비꽃 되셨네      저 강 속에 강물 되는 산을 보세요      저 산골짜기 산이 되는 강을 보세요      나 홀로 봄 언덕에 풀피리 불어 본다      민들레야 내 사랑을 멀리 멀리 뿌려다오      당신이 하신 말씀 가만 가만 들리도록      초록빛 그리움을 홀로 울리라      초록빛 그리움을 홀로 울리라</p>		<p><b>* 갈 땅도 없는 봄은 오지나 말지 (박아지)</b>      목동의 풀피리는 구성도지지      은근한 그 곡조가 내 맘 흔드네      갈 땅도 없는 봄은 오지나 말지      고향을 떠나는 봄 오지나 말지      들꽃은 웃고 싶어 웃는 봄이요      새들은 울고 싶어 우는 봄이나      울지도 웃도 못할 봄철이어든      속상해 애를 태며 오지나 말지</p> <p><b>* 봄바람 님바람 (고명기/작사 한복남/작곡)</b>      꽃바구니 대굴대굴 금잔지에 굴러놓고      풀피리를 불어봐도 시원치는 않더라      나도 몰라 웬일인지 정녕코 나는 몰라      봄바람 님의 바람 살랑 품에 스며드네</p> <p>삼단같이 치렁치렁 동백기름 검은 머리      청지천색 봄바람에 속타는줄 모르나      꿈도 많고 한도 많은 열여덟 봄아가씨      봄바람 님의 바람 살랑 품에 스며드네</p>	
<p>별자리 중에서 염소자리는 풀피리를 처음 만들었다는 판의 별자리이다. 판은 사랑하는 시링크스가 갈대로 변하자 그 갈대로 풀피리를 만들어 불었으며 그것을 판파이프 또는 시링크스라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어떻게 풀피리가 시작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역사가 시작된 이후 우리민족과 함께 계속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b>문학이나 예술에 있어서도 고향의 그리움이나 아련한 기억을 떠올릴 때 또는 인생무상의 감성을 나타내는데 풀피리를 이용하였다. 풀피리 소리는 정서적으로 소박하고 우리와 가까이 있는 소리</b> 였다.</p>			
<p>● 제언 : 옛 자료에는 풀피리의 정서를 표현한 작품이 많지만 최근에는 그 정서가 점점 시들어 가는 것 같다. 풀피리가 좀 더 대중화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p>			

일 시	2005년 8월 10 일 수요일	장 소	동강 문희마을
제출자	김 지 현		
<p>● 조사 내용 요약 정리</p> <p>* 사철나무 잎으로 소리 내 보기  사철나무 잎을 미리 따두어 씻어 놓은 다음 약간 건조 시킨 후 둥글게 말아 끝을 약간 눌러준 후 입에 넣고 바람을 불어 넣어 주면 소리가 난다.  사철나무 뿐 아니라 동백나무 잎도 같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p>			
● 소재	● 소재의 특징	● 기타	
사철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키는 3m 정도이며 줄기와 가지는 녹색을 띤다.</li> <li>-잎은 마주나는데 앞면은 광택이 나는 짙은 녹색이나 뒷면은 황록색이다. 잎 가장자리에는 끝이 무딘 톱니들이 있다.</li> <li>-줄기는 둥글고 매끈하다.</li> <li>-반그늘진 곳에서 잘 자라고 가지가 많이 나오며, 공해나 바닷바람에 강하다.</li> <li>-한방에서 이뇨제 및 강장제로 쓴다.</li> </ul>		
<p>● 소감</p> <p>- 새롭게 알게 된 사실/ 느낌/</p> <p>사철나무는 잎이 두꺼워 소리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는데 깊이 있는 소리가 나왔다.</p>			

일 시	2005년 8 월 24일 수요일	장 소	국립수목원
제출자	김지현		
조사 주제	상록수잎, 갈대, 동백나무잎, 사스래잎(벗겨지는 수피이용) 등 잎말이 형식의 풀피리 연구 조사		

● 조사 활동 보고



그림 1 조릿대



그림 2 민들레

조릿대는 줄기를 잘라 속에 있는 심을 빼내고 속을 비운 후 남은 부분을 입에 물고 불면 소리가 난다.

민들레는 꽃이 올라온 꽃대 부분을 뿌리 부분에서 자른 후 꽃을 따버리면 속이 빈 긴 원통만 남게 된다. 이것을 입에 물고 불면 소리가 난다.

일 시	2005년 7월 7일 화요일	장 소	산음휴양림
제출자	양윤화		
<p>● 조사 내용 요약 정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비추잎 준비</li> <li>- 비비추잎으로 연주하는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잎을 2미리 정도 반듯하게 접어 양쪽을 당기듯 잡는다.</li> <li>② 입술에 살짝 넣고 분다</li> </ul> </li> </ul>			
● 소재	● 소재의 특징	● 기타	
비비추	<p>잎자루가 길고 잎은 달걀형으로 길이 12-13센치, 폭8-9센치며 7-9개의 맥이 뚜렷하고 가장자리는 물결모양. 잎이 두꺼워 소리내기가 어려움.</p>		
<p>● 소감</p> <p>풀피리는 잎이 얇을수록 소리내기가 쉽고 입술에 대고 소리를 내거나, 손에 끼고 소리를 내는 등 쉽게 자연에서 놀잇감으로 이용할 수 있어 좋다. 배우고자 하는 욕심은 앞서고 실력은 어렵고 난감하다.</p>			

일 시	2005년 7월 27일 수요일	장 소	동강 문희마을 숲
제출자	양윤화		
<p>● 조사 내용 요약 정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비추잎, 밀나물잎 준비</li> </ul>			
● 소재	● 소재의 특징	● 기타	
밀나물	<p>백합과 덩굴성 식물. 잎은 타원달걀형 모양. 길이5-15, 폭3-7센치로 잎맥은 5-7맥이 뚜렷함.</p>		
<p>● 소감</p> <p>밀나물은 비교적 소리내기가 쉬웠다. 소리를 잘 내지 못하기 때문에 흥미가 줄어드는것 같다. 뽕-소리 만으로도 만족해야겠다.</p>			

#### 4) 강의 자료

강의자료	1	날짜	2005년 5월 9일
제 목	풀피리의 역사와 현황		
<p>① 풀피리는 구멍이나 현과 같은 가공이 필요 없는 자연적인 악기로서 그 기원을 따진다면 식물과 인간이 교감하는 역사의 기원과 거의 궤를 함께 할 것이다. 따라서 <b>풀피리를 인간의 신체부위를 이용한 악기를 제외하고는 인류역사상 가장 단순한 악기로 볼 수도 있고 가장 오래된 악기로도 볼 수 있다.</b> p.12</p> <p>② 수렵으로 생존하던 원시사회에서 풀피리는 아마도 일종의 신호의 도구로서 소리를 내었던 것일 수도 있다. 지금도 풀피리나, 다른 기구의 소리를 내어서 새를 모으고 새 사냥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새소리를 풀피리로 모방한 사례들이 있다고 한다. p.12</p> <p>③ 지금 역사에 현존하는 악기의 형태는 동물의 뼈로 만든 피리가 가장 오래된 형태로 보인다. p.13</p>			
			
<p>그림 1 - 동물 뼈로 만든 피리</p>			
<p>④ 우리 풀피리는 &lt;해동역사&gt;에서 “나뭇잎을 입에 물고 휘파람을 불면 그 소리가 맑게 진동하는데 굴나무와 유자나무를 쓰면 더욱 좋다”는 기록이 있는 걸로 보아, 앞서의 뼈피리, 돌피리, 흙피리 등과 함께 음악의 역사를 발전시켜 온 것으로 보인다. p.16</p> <p>⑤ 중국에서도, 당 시대에 두우(杜佑)라는 사람이 쓴 「통전(通典)」에도 당시의 음악에 대한 간단한 문장이 나오는데 연악기(讌樂伎)라는 대곡에 쓰인 악기의 하나로 취엽(吹葉, 풀피리)이 등장한다고 한다. 이미 당나라에서도 풀피리를 궁정오케스트라의 악기로 취급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p.16</p> <p>⑥ 우리나라에는 역사 속에서도 풀피리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물론, 전통사회에서 많이 연주되는 대표적인 풀피리는 호들기이다. 지역마다 후두기, 회뚜기 등으로 불리기는 하지만 이 호들기는 <b>보통 물이 오른 버드나무 가지를 이용하여 만들어 부는 아이들의 전통놀이와 관련이 있다.</b> p. 17</p>			

⑧ [악학궤범]의 초적에 나타난 해설을 잠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p.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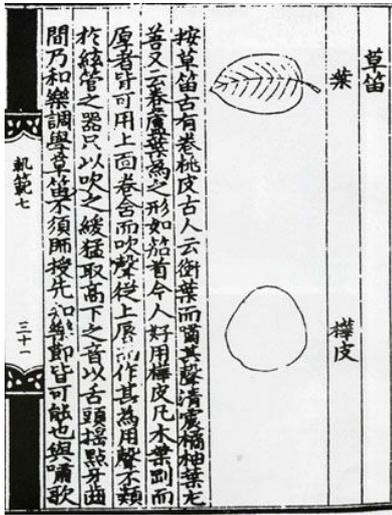


그림 2 - 악학궤범에서의 초적

상고하건대, 초적에 예전에는 도피(桃皮)를 만 것이 있었다. 예전 사람이 말하기를 “잎사귀를 입에 물고 휘파람을 부는데, 그 소리가 맑게 진동한다. 굴과 유자의 잎사귀가 더욱 좋다.” 하였고, 또 “갈대 잎사귀를 말아서 <초적>을 만드는데, 그 모양이 ‘가’와 같다.” 하였다. 지금 사람은 화피를 즐겨 쓴다. 대개 나뭇잎이 단단하고 두꺼우면, 그것을 다 쓸 수 있다. 상면(上面)을 만 것을 입에 물고 불면, 소리가 윗입술로부터 난다. 그 음의 사용은 현관 악기의 경우와 같지 않다. 그저 가만히 세게 불어서 높고 낮은 음을 취하는 데는 선생의 가르침이 필요치 않고, 먼저 악절만 다 알면 다 할 수 있다.

⑨ 조선 성종 때에 편찬된 [악학궤범]이 풀피리를 초적으로 소개한 최초의 문헌이다. 이미 이 문헌은 한국음악을 기록한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초적의 재료나 연주법등이 기록되어있다. p.18

⑩ 이후에 문학이나, 시 등에서 우리는 풀피리의 역사를 읽을 수 있다. p.20

참 고 문 헌	유영초, 『풀피리 전승예술 조사연구』, 봄나무, 2005.
---------	----------------------------------

강의자료	2	날짜	2005년 5월 9일
제 목	자연체험과 전승예술의 접목		
<p>① 자연체험과 환경교육이 사회적인 교육과제로 등장하면서 다양한 콘텐츠의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우리 전통은 생태적 삶의 양식과 문화가 배어 있음에도 아직까지 전통예술과 놀이 등에서 자연체험과 환경교육의 소재들을 발굴, 응용하는 노력들이 부족하다.</p> <p>② 풀피리는 전승예술일 뿐 아니라, 중요한 생태교육이자 자연체험이다. 풀피리를 들여보는 것은 풀피리의 소재인 자연물에 대한 이해와 교육이 수반되고 더불어 예술 체험과 자연체험 활동이 되는 것이다. 풀피리 뿐 만이 아니라, 다른 전승되고 있는 놀이와 공작 등도 향후 예술 체험과 환경교육이 접목되는 매개로 연구 개발할 필요가 있다.</p>			

강의자료	1	날짜	2005년 5월 10일
제 목	플피리의 방법론		
<p>① 플피리의 소재는 거의 모든 식물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p> <p>② 플피리의 방법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계 :: 플피리 잡기 방법을 익힌 후 불면 금방 소리가 삐 - 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는 많이 없음) 대부분은 약간의 삐-소리 비슷한 소리만 난다. 세게 불어야 하므로 현기증도 나고 머리가 멍하게 된다. 이때는 좀 쉬었다가 다시 분다. 처음은 소리가 나지 않아도 계속 연습하면 소리는 나게 된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게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li> <li>◆ 2단계 :: 삐-소리가 나면 다음은 소리를 길게 나게 하는 것을 연습한다. 소리가 길게 나야 곡을 연주할 수 있다. 3초에서 5초, 10초까지 소리를 계속 나게 하면 두 번 째 단계는 끝이다.</li> <li>◆ 3단계 :: 길게 나는 소리를 잘라서 &lt;학교종&gt;, &lt;비행기&gt; 등을 연주해 본다. 소리를 잘라 가락만으로 연주해 본다. 연습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음이 한 단계씩 높아지고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li> <li>◆ 4단계 :: 소리를 길게 내며 음계(도, 레, 미, 파, 솔, 시, 도)를 연주한다. 처음은 한음만 나오지만, 계속 분다. 좀 더 세게 불면 높은음이 나오게 되고 약하게 불면 낮은음이 나오게 된다. 한 번에 성공하려 하지 말고 하루에 한음씩 늘려 나간다는 생각으로 한다. 높은음은 위의 떨림 부분이 작게 사용하고 낮은 음은 넓게 사용하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li> <li>◆ 5단계 :: 1단계에 가기 까지가 제일 힘이든 시간으로 바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하루에서 이틀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2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배움의 속도가 생기게 되며 조금만 더 열심히 연습하면 3단계로 들어서게 된다. 3단계까지가 초보에서의 마지막 단계로 조금 더 자신을 가지고 연습하여 &lt;학교종&gt; &lt;비행기&gt; 등이 연주되면 다음부터는 소리를 다듬으면서 자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동요를 연주할 수 있게 된다.</li> </ul> <p>여기까지 오는데 개인에 따라 시간차가 많이 생기며 빠른 사람은 1주에서 2주정도 하루에 한, 두 시간 연습기준으로 느린 사람은 좀 더 시간이 걸리지만 누구나 포기하지 않고 연습하면 한 달 안에는 간단한 동요를 부를 수도 있다. 기본적인 동요를 비슷하게 연주하는 상태에서 불기의 세기로 음을 한음씩 올라가고 내려가기를 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초급에서 중급으로 올라가게 되면 도레미 송을 완전히 연주하게 되면 기본적인 동요나 쉬운 가요는 악보 없이 연주할 수 있는 단계이다.</p>			

강의자료	1	날짜	2005년 5월 17일
제 목	풀피리와 문학전통		
<p>○ 한국에서 풀피리에 관한 자료는 거의 없다. 이진원에 의한 풀피리연구가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진원의 경우는 풀피리의 실제적인 방법을 중심으로 기술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론적인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p.95</p> <p>-아래는 문학작품을 통해 등장하는 풀피리를 중심으로 엮은 것이다.</p> <p><b>1. 시와 풀피리</b></p> <p><b>1) 박두진 - 「어서 너는 오너라」</b>  기름진 냉이꽃 향기로운 언덕, 여기 푸른 잔디밭에 누워서, <b>철이야, 너는 날닐날 가락 맞춰 풀피리나 불고</b>, 나는, 나는, 두둥실 두둥실 봉새춤 추며, 막쇠와 돌이와, 복숭이랑 함께, 우리 우리, 옛날을, 옛날을 뒹굴어 보자.</p> <p><b>2) 한하운 - 「보리피리」</b>  <b>보리피리 불며/ 봄 언덕/ 고향 그리워</b>  피--ㄹ닐리리/ <b>보리피리 불며/ 꽃 청산/ 어린 때 그리워/ 피--ㄹ닐리리.</b></p> <p><b>3) 최명길 - 「풀피리 하나만으로」</b>  <b>풀피리 하나만으로 가오리/ 산과 바다 그 사잇길로/ 풀피리 하나 짚어지고</b> 나는 가오리</p> <p><b>4) 정지용 - 「고향」</b>  <b>어린 시절 불던 풀피리 소리 아니나고/ 메마른 입술에 쓰디쓰다.</b></p> <p><b>5) 고산 - 「내마음은 아직도」</b>  살구꽃 필 무렵이면/ 아이들과 들로 산으로/ <b>풀피리 불며/ 나는 추억속으로/ 아직도 머물고 싶어라</b></p> <p><b>2. 노래와 풀피리</b></p> <p><b>1) 고향생각 - 김루안 요(동요/ 중학교 음악교과서 수록)</b>  버들 숲 언덕에 모여 앉아서 <b>풀피리 불며 놀던 그리운 동무</b>  <b>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나</b> 생각할수록 내 고향이 그리웁니다.</p>			

**2) 새 봄 - 권숙자 작사(동요/ 총학교 음악교과서 수록)**

새파란 봄하늘에 아지랑이 꿈꾸고 풀피리 소리에 꽃눈 뜨고 나비는 즐겁네 꽃바람 살  
랑 불면 진달래 손을 잡고 날아라 산새야 꿈을 싣고 새봄 노래하자.

**3) 뿌리 - BobbyKim 노래**

check shorty by my side take a forty in my ride **내몸을 감싸안은 동양의 정기 저  
풀피리 소리 다 들리는지 들리는지** 가야금의 선율이 있어 callin em to .....

**4) 성안의 아이 - 이선희 노래**

해 저문 고요한 하늘로 **아이는 풀피리를 불었지 필릴리- 피리소리 번져가거라** 날 찾는  
이에게로 어딘지 내가 모르는 넓은 곳까지.....

**5) 두메산골 - 배호**

도라지 꽃피던 그날 맹세를 걸고 떠났지 산딸기 물어 흘러 떠나가고 두 번 다시 타향  
에 아니 가련다 **풀피리 불며불며 노래하면서** 너와 살련다 p.96 - p. 105

<b>참고 문헌</b>	유영초, 『풀피리 전승예술 조사연구』, 봄나무, 2005.
------------------	----------------------------------

강의자료	2	날짜	2005년 5월 17일
제 목	플피리의 악기적인 분류		
<p>◆ [악학개범] 등의 역사적 기록으로 보면 플피리를 하나의 악기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악기란 무엇일까라는 정의에서 보면 악간의 견해차가 있을 수 있다. 즉 소리가 난다고 해서 모두 악기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족음악 장르에서 보면 플피리가 악기로서 사용된 예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나무열매 피리가 아프리카 등에서는 악기로 사용되고 있고 또 나뭇잎을 돌돌 말아서 부는 피리도 폴리네시아 등에서는 지금도 악기로 훌륭하게 쓰이고 있다고 한다.</p> <p>소리가 나는 모든 것이 악기는 아니겠지만, 그 소리를 즐길 수 있는 도구로 쓰인다면 악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민족음악 연구가로 유명한 ‘구로자와 다카야사’가 [악기의 역사]라는 저서에서 밝힌 악기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예를 들어 참새를 쫓는 종이나 불조심을 알리기 위해 치는 나무뚝딱이 등은 음악을 위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음악에 사용되는 것도 아니지만 음악에 활용하면 악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자동차나 전철의 경적, 사이렌, 부저 등도 모두 악기학의 분류에 소속하는 도구다” p.21</p> <p>◆ 우선 플피리를 악기라고 했을 경우 그러면 어떤 악기적 계통에 속하는지에 대한 분류이다. 여기서는 클루트 작스라는 사람의 악기분류를 참고하여 분류한다. 작스는 세계적인 비교음악 학자로 「악기의 역사」 등 많은 연구를 했고 우리의 전통악기를 분류하는데도 참고로 하고 있다. p.22</p> <p>◆ 플피리의 악기적인 분류체계를 ‘사토쿠니아키’의 「초적」을 참고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p> <p>① 나팔형 - 부는 입구가 입술을 진동시키는데 적합하여 트럼펫이나 소라 고통처럼 입술을 떨리게 해서 소리를 낸다.</p> <p>② 플룻형 - 공기가 구멍으로 들고 나면서 생기는 공기의 진동으로 소리를 낸다. 플피리에서는 이 부분을 다음 7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p> <p>가. 줄피리형 :: 구멍을 뚫은 나무열매 등에 끈을 매고 돌려서 핑핑 소리가 나게 한다. 궁도에서 사용하는 화살과 같은 원리이다. 예&gt; 도토리 피리, 밤 피리 등.</p> <p>나. 리코더형 :: 호루라기와 같이 관에 장애물을 넣고 그 틈으로 숨을 불어넣어 울리는 피리이다. 공명관에 구멍을 뚫어서 음정을 붙일 수도 있는 것들이다. 예&gt; 대나무 피리, 호장근 피리 등</p> <p>다. 플룻형 :: 모든 횡피리 타입이다. 한 쪽이 막힌 통자루에 부는 입구를 뚫어 소</p>			

리를 낸다. 예> 대나무 횡피리, 호장횡피리

라. 대나무피리형 :: 가늘고 긴 관에 부는 입구를 만들어 소리를 낸다. 소리를 내기까지 연습이 필요하다. 예> 호장대나무피리, 머위피리

마. 팬파이프형 :: 목동들이 사용하던 피리로 병 입구를 부는 것과 같은 방법이다. 예> 오동나무 잎자루 피리, 호장근 팬파이프

바. 돌피리형 :: 기본적으로는 대나무 피리와 같은데 둥근 돌이나 열매에 구멍을 뚫어 한 쪽에 부는 곳을 만들고 다른 한 쪽을 손가락으로 들고 분다. 예> 도토리피리, 복숭아나 살구씨 피리

사. 도토리피리형 :: 이것도 돌피리형의 변형이라고 해도 좋은데, 구멍을 뚫고 큰 구멍은 부는 구멍으로 하고 그 외 작은 구멍을 더 뚫어 음정을 변화시킨다. 예> 하늘타리 피리, 칠엽수 열매피리

③ 리드형 - 클라리넷이나 태평소처럼 부는 입구와 같이 얇은 판 같은 것(리드)을 숨으로 진동시키며 음을 낸다. 리드의 종류에 따라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가. 싱글리드형 :: 진동하는 부분이 한 장이다. 한 장이지만 갈대피리와 같이 돌돌 말려서 판처럼 되지 않는 것도 있다. 세밀하게 구분하면 숨을 내 쉴때 올리는 것과 빨아들일 때 소리를 내는 것이 있다. 호기타입/ 부추피리, 합장피리. 호장리드피리, 병꽃나무피리, 갈대순피리, 잡목피리. 흡기타입/ 합장피리, 부추피리

나. 더블리드형 :: 이것은 두장의 진동체가 소리를 낸다. 악기로 하자면 오보에와 비슷하다. 호기타입/ 앞말이 피리, 콩깍지피리, 민들레피리, 보리피리, 버드나무피리. 흡기타입/ 원추리피리, 창포피리, 양하피리

다. 공명피리형 :: 싱글리드의 일종이라 할 수 있는데 부는 사람이 소리를 내어 얇은 막을 진동시키는 것이다. 예> 오동나무막피리, 어린대나무막피리

이와 같은 분류는 일본의 '사토 쿠니아키'가 분류한 분류체계이며, 이 분류에 따른 각각의 풀피리에 대한 실제적인 조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루어져 있지 않다. 다만, 학술적으로는 이진원에 의한 풀피리의 분류가 되어 있다. p.23 - p.26

참 고 문 헌

유영초, 『풀피리 전승예술 조사연구』, 봄나무, 2005.

강의자료	1	날짜	2005년 5월 24일
------	---	----	--------------

제 목	풀피리의 소재와 연습의 실제
-----	-----------------

**\* 원추리 피리**

**1) 식물의 기본 정보**

**Hemerocallis fulva L.** / 기새(영남), 넓나물, 신달비(전남 완도)

-한국, 중국, 일본 등지에 분포한다.

-전국 각지의 산야에 분포한다.

-해가 잘 들고 보수력이 있는 부식질이 많은 비옥한 땅이 이상적이며 구릉지 같은 경사지에서도 잘 자란다. 다소 습한 곳에 군락을 이루며 자생한다. 충분한 광선을 요하며, 노지에서 월동하고, 16~30℃에서 잘 자란다.

**2) 풀피리 부는 법**

-흡기형으로 불기 ::

원추리도 이른 봄에 싹이 나온다. 원추리는 나물을 해먹는다. 보통 풀피리라고 하면 불어서 소리를 내는 것을 말하지만 원추리피리는 반대로 들이마시면서 소리를 낸다. 흡기형 피리인 셈이다. 원추리의 잎이 겹쳐져 있는 뿌리부분을 사용한다. 잎 가장자리의 가는 부분이 겹쳐져 비어 있는 부분을 6~10센티를 자른다. 잎의 안쪽에 말려들어간 작은 잎을 또 떼 내어 안쪽의 잎을 제거하면 속이 비어있는 좋은 잎을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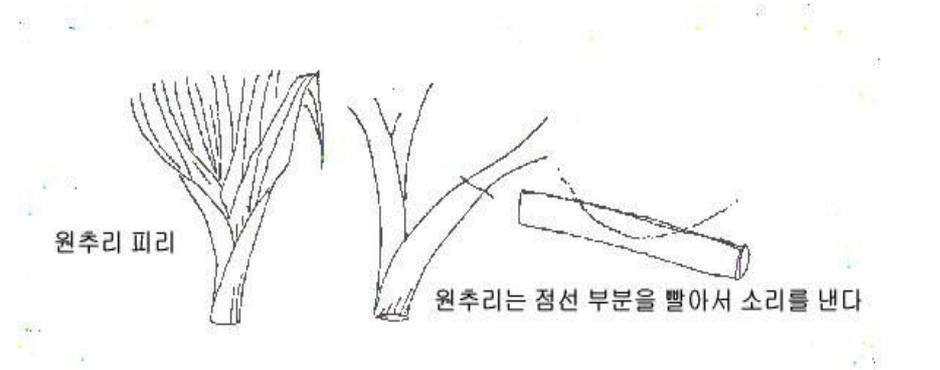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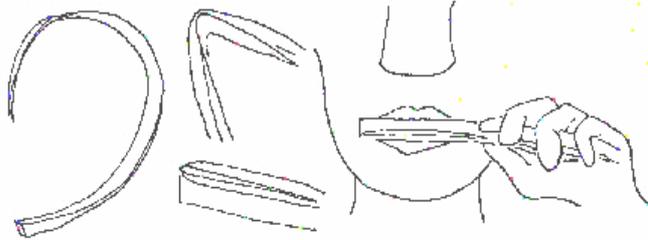


그림 3 - 원추리 피리 (흡기형 불기)

-접은 원추리 피리 불기 ::

봄에 새순을 내는 풀 중에도 원추리는 가장 먼저 나오는 식물 중 하나이다. 가장 흔한 화초이기도 하다. 위에서처럼 빨아들이면서 불기도 하고 접어서 불기도 한다.

#### 원추리 피리불기



원추리잎이 너무 가늘지 않은 것으로 골라, 위아래 그리고 옆으로 접어 분다

그림 4 - 원추리 피리(접어서 불기)

-세운 원추리 피리 불기 ::

원추리의 바깥부분 이파리를 한 장 뜯어 원추리피리를 만들어 불 수 있다. 부는 법은 우선 엽저 쪽의 잎이 합쳐진 부분의 6~7센티 잘라낸다. 한쪽을 손가락으로 잡고 반대쪽을 입에 물고 부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공기가 잎 옆으로 합쳐진 부분에서부터 나와 얇은 리드를 진동시켜서 음을 낸다. p.31 - p.35

#### 원추리 잎 세워서 불기



손가락으로 아래 구멍을 막는다

그림 5 - 원추리 피리(세워서 불기)

참고  
문헌

유영초, 「풀피리 전승예술 조사연구」, 봄나무, 2005.

강의자료	2	날짜	2005년 5월 24일
제 목	풀피리의 소재와 연습의 실제		

\* 민들레 피리

1) 식물의 기본 정보

*Taraxacum mongolicum* H. Mazz. / 민들레(영남), 머슴둘레(전남구례), 포공영, 포공초

-한국, 일본, 대만, 만주 등지에 분포한다.

-전국에 분포하며 양지에 잘 자란다.

-생활력이 강하여 대개의 환경에 적응하여 잘 자라지만 굳이 적지를 고르려면 배수가 잘 되고 해가 잘 드는 곳이 좋으며 비옥한 땅이면 더욱 좋다.

2) 풀피리 부는 법

-민들레피리는 간단한 더블리드 즉 2장의 리드가 진동하는 풀피리이다. 우선 봉오리, 꽃, 종자의 어느 부분에 붙어있는 줄기를 떼어낸다. 그리고 뿌리에서부터 2~3센티 부분을 자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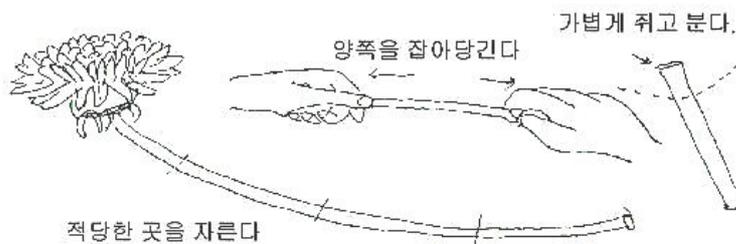


그림 6 - 민들레 피리 불기

-칼로 자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손으로 할 때는 손톱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부는 곳이 깨끗하게 잘려지지 않기 때문에 음이 잘 나오지 않는다. 자르고 싶은 부분의 양쪽을 손가락으로 잡고 강하게 양쪽으로 당기면 폭-하고 잘라진다.

-5센티 정도의 길이로 잘라 관의 한 방향을 눌러서 평평하게 만들면 된다. 누른 곳을 입에 물고 강하게 숨을 불어넣으면 뿌-하고 소박한 소리가 난다.

-원추리피리와 같이 민들레피리로도 음정을 불일 수 있다. 민들레의 줄기를 입에 물 때, 입술을 앞 뒤로 움직여서 줄기를 물고 있는 위치를 약간 옆으로 뺀다. 이렇게 해서 도, 레, 미, 파, 솔 정도의 음정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잘하면 1옥타브까지도 낼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

참 고 문 헌	유영초, 『풀피리 전승예술 조사연구』, 봄나무, 2005.
---------	----------------------------------

강의자료	1	날짜	2005년 5월 31일
제 목	폴피리를 이용한 교육 방법론		
<p>폴피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환경교육에 이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실질적인 문제이다. 폴피리의 경우는 폴피리의 소재의 발굴과 채집단계, 폴피리 소재의 이용과 가공이 단계, 폴피리의 연주와 체험의 공유 단계 마다 교육의 방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p> <p>전통 속에서 행해졌던 폴피리에 대한 조사 연구의 경우, 문헌, 인터넷, 연륜이 있는 어르신 등의 직접 인터뷰 등을 과제의 한 형식으로 주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또 소재의 발굴과 채집은 현장교육의 한 방법으로서, 채집도구와 방법을 환경교육의 일환으로 전개할 수 있다. 그리고 채집된 자연물의 가공과 이용의 경우는 구체적인 공작과 놀이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한편, 폴피리를 볼어보는 것은 생태적 감수성을 키워가는 생태교육이자 예술교육의 초보적 단계가 된다.</p>			

강의자료	2	날짜	2005년 5월 31일
------	---	----	--------------

제 목	풀피리 재료 탐구
-----	-----------



그림 7 - 비비추

◆ 비비추

\*학명 : *Hosta longipes*

\*분류 : 백합과 \*분포지역 : 한국 / 일본 / 중국

\*자생지 : 산지의 냇가

\*장병옥잠(長柄玉簪)·장병백합(長柄百合)·옥잠화라고도 한다. 잎은 모두 뿌리에서 돌아서 비스듬히 자란다. 잎은 달걀 모양 심장형 또는 타원형 달걀 모양이며 끝이 뾰족하고 8~9맥이 있다. 잎 가장자리가 밋밋하지만 다소 물결 모양이다.

\*비비추의 잎맥을 이용하면 불기에 편하다. 소리가 맑고 잎이 크고 단단하여 풀피리의 재료로 적합하다.

강의자료	1	날짜	2005년 6월 7일
제 목	플피리와 현장체험활동의 연계방안		
<p>현장체험활동은 실내의 환경교육과 달리 참여자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프로그램이 중심이 되어야한다. 그런 점에서 플피리는 현장체험활동의 가장 좋은 주제와 소재가 된다. 숲 해설 프로그램 내에서 지식정보, 문화적인 정보와 함께 심미적인 체험의 형태로 플피리를 가르치고 연주하는 것은 현장체험활동을 극대화 할 수 있다.</p> <p>생태교육자는 플피리를 통해서 참여자의 체험이 오감을 통해서 인식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채집과 가공과 연주까지 연계하여 수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물론 현장체험활동의 경우는 그 참가자의 수와 인도자의 역량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지는 것을 중시해야 한다.</p>			

강의자료	2	날짜	2005년 6월 7일
제 목	플피리 재료 탐구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flex-start;"> <div style="flex: 1;">  </div> <div style="flex: 2; padding-left: 10px;"> <p>◆ 청미래 덩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떡잎식물 백합목 백합과의 낙엽 덩굴식물.</li> <li>*학명: Smilax china</li> <li>*분류: 백합과</li> <li>*분포지역: 한국/·일본/·중국/ 필리핀/ 인도차이나</li> <li>*서식장소: 산지의 숲 가장자리</li> <li>*크기: 약 2m</li> </ul> </div> </div> <p>그림 8 - 청미래 덩굴</p> <p>*굵고 딱딱한 뿌리줄기가 꾸불꾸불 옆으로 길게 번어간다. 줄기는 마디마다 굽으면서 2m 내외로 자라고 갈고리 같은 가시가 있다. 잎은 어긋나고 원형 넓은 달걀 모양 또는 넓은 타원형이며 두껍고 윤기가 난다. 잎자루는 짧고 턱잎이 칼집 모양으로 유착하며 끝이 덩굴손이다.</p> <p>*잎이 얇아 소리가 잘 난다. 초보자들이 처음에 자신감을 얻고자 하기에 좋은 플피리 재료이다. 그러나 잎이 얇고 단단하지 못하여 긴 연주가 어렵고 빨리 시들어 버린다.</p>			

강의자료	1	날짜	2005년 6월 14일
제 목	풀피리 재료 탐구		
<p><b>#. 나뭇잎 피리</b></p> <p>나뭇잎으로 볼 수 있는 모든 피리를 나뭇잎 피리라고 일단 분류해놓고 시작한다. 나무의 경우 피리가 될 수 있는 잎이 붙은 모든 나무가 가능하다. 익숙하게 되면 풀잎 보다 수목의 잎이 붙기 편하게 더 많지만 처음 하는 사람이 시작할 때는 풀잎을 사용하는 것이 더 쉽다.</p> <p>우선 나뭇잎피리란 잎을 입술에 가볍게 대고 숨을 내쉬면서 잎을 진동시켜 소리를 내는 리드피리를 말한다.</p> <p><b>※ 사용가능한 나뭇잎의 종류</b></p> <p>풀피리불기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주의할 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얇고 압력이 있는 잎을 사용할 것</li> <li>② 잎의 가장자리가 날카롭지 않고 매끄럽고 톱니가 없을 것</li> <li>③ 독이 있는 것은 사용하지 말 것</li> <li>④ 잎에 털이 있는 것은 피할 것</li> </ol> <p><b>※ 나뭇잎 피리로 이용하기 쉬운 계절 별 소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봄 :: 클로버, 싸리, 진달래, 동백의 꽃잎, 등나무, 메밀жат밤나무나 떡갈나무류의 어린잎 등</li> <li>◆ 여름 :: 청미래덩굴, 장미꽃잎, 닭의 장풀, 등나무, 물레나물, 진달래, 사철나무의 어린 잎 등</li> <li>◆ 가을 :: 여름과 거의 같다</li> <li>◆ 겨울 :: 자금우의 잎(가장자리를 가위로 둥글게 자름)등 상록수는 가능, 산다화의 꽃잎, 시클라멘의 꽃잎 등 p.83 - p.84</li> </ul>			
참 고 문 헌	유영초, 『풀피리 전승예술 조사연구』, 봄나무, 2005.		

강의자료	1	날짜	2005년 6월 21일
제 목	폴피리 초급 연주		
<p><b>※ 폴피리 소리 내는 연습</b></p> <p>아랫입술을 평평하게 하고 윗입술 조금 앞으로 민다. 윗입술에 앞의 가장자리가 가볍게 닿도록 손가락으로 댄다. 이 때 앞이 조금만 바깥으로 둥글게 되도록 윗입술에 댄다. 즉 둥글게 말린 앞의 가장자리가 윗입술 밑에 오도록 한다. 단 앞이 휘어지면 안 된다. 또한 손가락에 힘을 주어 입을 강하게 잡지 말고 가볍게 친다.</p> <p>다음으로 윗입술과 둥글게 된 윗 사이에서 가늘게 숨을 내쉴다. 숨의 강도는 보통 숨 쉴 때 정도이다. 너무 세거나 약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윗 대신에 꽃잎을 사용하여 가볍게 숨을 내쉬면 간단하게 소리를 낼 수 있다. 또 불이 부풀려지지 않도록 한다. p.84 - p.85</p> <p><b>※ 음계를 연습하는 법</b></p> <p>음을 잘 낼 수 있게 된 사람은 드디어 음계연습으로 들어간다. 입을 입에 대는 강도를 조금 달해 보기도 하고 손가락 대는 각도에도 변화를 주어야 한다.</p> <p>원리로 보면 앞이 진동하는 면적이 크면 음은 낮아지고 작으면 높은 음이 된다. 그렇지만 이것은 매우 미묘한 차이이기 때문에 누르는 강도, 입의 모양, 턱의 위치 등을 조금씩 변화시키면서 해봐야 한다.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음정이 변화하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몸에 익는다. 이 변화를 잘 기억하여 연습한다.</p> <p>처음에는 음정이 조금밖에 변하지 않지만 그래도 좋다. 미세한 소리의 변화를 느껴야 한다. 처음에는 단순한 음이 아름답게 나올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자신이 내는 음을 음미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처음부터 마음을 너무 조급하게 먹고 명곡을 연주하려 하면 금방 싫증을 느끼게 된다. 음정을 조금만 변화시켜도 음이 제 음을 낸다면 음역이 좁고 간단한 곡을 찾아 연습해 봐야한다. 이것이 되면 그 다음은 본인이 연습하기에 달려있다. p. 85 - p.86</p> <p><b>※소리가 난 이후의 연습</b></p> <p>양손을 사용하여 간단하게 곡을 볼 수 있게 되었다면 조금 고도의 기술로 나아가야한다. 한 손으로 연주하는 것이다. 양손의 검지 대신 한손의 검지와 중지를 앞 누르는데 사용하는 것이다.</p> <p>우선, 한손에 손가락 두 개를 V사인과 같이 가볍게 벌리고 입을 누른다. 아마 금방 연주 할 수 있을 것이다. 양손으로 볼 때처럼 입을 잘 잡을 수는 없으니까 앞의 탄력을 이용하여 부는 것이다. 앞이 조금 얇은 사스레피나무, 자금우, 메밀жат밤나무, 떡갈나무류의 작은잎(단 돌참나무는 좋지않다), 치자나무, 블루베리 등이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다. p.86 - p.87</p>			
참고문헌	유영초, 『폴피리 전승예술 조사연구』, 봄나무, 2005.		

강의자료	2	날짜	2005년 6월 21일
제 목	폴피리 재료 탐구		



그림 9 - 개나리

#### ◆ 개나리

\*쌍떡잎식물 용담목 물푸레나무과의 낙엽 관목.

\*학명 Forsythia koreana

\*분류 물푸레나무과

\*원산지 한국

\*분포지역 한국·중국

\*서식장소 산기슭 양지

\*크기 높이 약 3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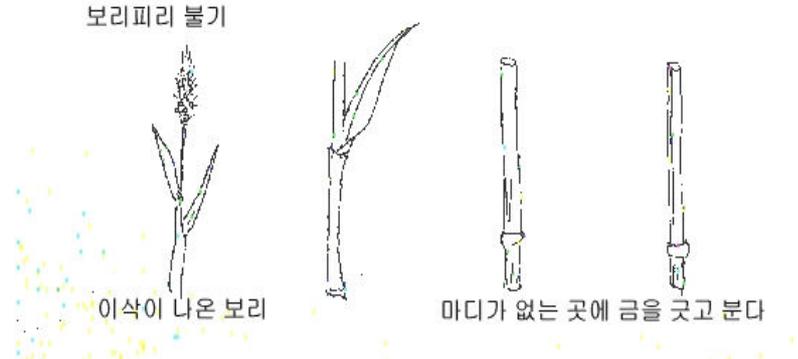
\*가지 끝이 밑으로 처지며, 잔가지는 처음에는 녹색이지만 점차 회갈색으로 변하고 껍질눈[皮目]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잎은 마주나고 타원형이며 톱니가 있고 길이 3~12cm이다. 잎 앞면은 짙은 녹색이고 뒷면은 황록색인데 양쪽 모두 털이 없다.

잎자루는 길이 1~2cm이다. \* 개나리 잎은 잎이 너무 얇거나 두껍지 않아 초보자들도 쉽게 소리를 낼 수 있다. 다만 너무 어린 잎은 쉽게 찢어진다. 주로 낮은 소리가 나며 비교적 잎이 작고 쉽게 시들지 않는다.

강의자료	1	날짜	2005년 6월 28일
제 목	폴피리 교육 프로그램의 적용방안		
<p>폴피리는 전승예술 중에서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고도의 숙련을 거친 경우는 그 어떤 장르보다 뛰어난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이다. 폴피리는 생태교육의 한 축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예술 교육의 측면에서 접근 할 수도 있다.</p> <p>생태교육 프로그램으로서는 폴피리 소재와 생태문화적 특징을 통해서 교육 커리큘럼으로 적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예술교육의 측면에서는 폴피리 연주의 향유와 직접 연주하는 방법을 배우는 커리큘럼을 통해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함께 진행될 수 있는 독자적인 생태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서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p>			

강의자료	2	날짜	2005년 6월 28일
제 목	폴피리 재료 탐구		
<p>◆ 아까시</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flex-start;"> <div style="flex: 1;">  </div> <div style="flex: 2; padding-left: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쌍떡잎식물 장미목 콩과의 낙엽교목.</li> <li>*학명: Robinia pseudoacacia</li> <li>*분류: 콩과</li> <li>*원산지: 북아메리카</li> <li>*자생지: 산과 들</li> <li>*크기: 높이 약 25m</li> <li>*나무껍질은 노란빛을 띤 갈색이고 세로로 갈라지며 턱잎이 변한 가시가 있다. 잎은 어긋나고 홀수1회 깃꼴겹잎이다.</li> <li>*일화: 오세철 선생님이 폴피리를 처음 시작할 때 아까시 나무 잎으로 연습하셨다고 한다. 한자리에서 연습하고 버린 아까시 잎이 선생님의 무릎을 덮었다고 한다.</li> </ul> </div> </div> <p>그림 10 - 아까시</p> <p>* 아까시 잎은 작지만 소리가 잘난다. 얇고 높은 음이 나며 비교적 소리가 잘 나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사용하면 좋은 폴피리 재료이다. 다만, 잎이 여리기 때문에 오랫동안 불기에는 좋지 못하다. 현장에서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폴피리 불기를 할 때 좋은 재료라고 생각된다.</p>			

강의자료	1	날짜	2005년 9월 13일
제 목	폴피리 초중급 연주(폴피리 연습의 실제)		
<p><b>#. 음계를 연습하는 법</b></p> <p>음을 잘 낼 수 있게 된 사람은 드디어 음계연습으로 들어간다. 입을 입에 대는 강도를 조금 달리해 보기도 하고 손가락 대는 각도에도 변화를 주어야 한다. 원리로 보면 앞이 진동하는 면적이 크면 음은 낮아지고 작으면 높은 음이 된다. 그렇지만 이것은 매우 미묘한 차이이기 때문에 누르는 강도, 입의 모양, 턱의 위치 등을 조금씩 변화시키면서 해봐야 한다.</p> <p>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음정이 변화하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몸에 익는다. 이 변화를 잘 기억하여 연습한다.</p> <p>처음에는 음정이 조금밖에 변하지 않지만 그래도 좋다. 미세한 소리의 변화를 느껴야 한다. 처음에는 단순한 음이 아름답게 나올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자신이 내는 음을 음미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처음부터 마음을 너무 조급하게 먹고 명곡을 연주하려 하면 금방 싫증을 느끼게 된다.</p> <p>음정을 조금만 변화시켜도 음이 제 음을 낸다면 음악이 좁고 간단한 곡을 찾아 연습해 봐야한다. 이것이 되면 그 다음은 본인이 연습하기에 달려있다. 간단한 곡을 볼 수 있게 되기까지 필요한 시간은 개인차가 크겠지만 빠른 사람이 30분 정도에서 늦는 사람이라도 1주일에서 10일 정도라고 알려져 있다.</p> <p>쉬운 곡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연습을 그만두면 금방 원래대로 돌아가 음을 낼 수 없게 된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언제나 손에는 불기 쉬운 입을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p.85~p.86</p> <p><b>#. 연주가 가능한 경우</b></p> <p>손을 사용하지 않고 입만으로 연주하는 것이다. 이 방법에는 두 종류가 있다.</p> <p>첫째 방법은 [접은 나뭇잎피리]이다. 입을 가볍게 입에 눌러 놓고 손가락 대신에 아랫입술로 입을 누르는 것이다. 소리를 내는 방법은 같다. 손수건으로 입술을 잘 닦고 나서 입을 대도록 한다 한면이 까칠까칠한 앞이 입에서 잘 떨어지지 않는다. 사스래피나무, 구실잣밤나무 등의 앞이 특히 사용하기 쉽다.</p> <p>둘째 방법은 입안에 넣고 부는 법이다. 입을 직경 2~3센티의 원형으로 잘라 아랫입술과 잇몸사이에 끼우고 끝부분을 윗입술 쪽으로 해서 소리를 내는 것이다. 이 방법은 매우 어렵지만 열심히 연습하면 할 수 있다고 한다.</p> <p>또 연습을 위해서는 앞 대신에 얇은 셀룰로이드 판을 둥글게 잘라서 사용해도 된다. 그리고 이 셀룰로이드 판을 사용하는 것이 앞보다는 간단하게 음을 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플라스틱판으로 연습하고 자유자재로 연주할 수 있게 되면 앞으로 시험해 보는 것이 좋다. p.86 - p.87</p>			
참 고 문 헌	유영초, 『폴피리 전승예술 조사연구』, 봄나무, 2005.		

강의자료	1	날짜	2005년 10월 13일
제 목	각종 자연악기 만들어보기		
<p>#. 보리피리 / <i>Hordeum vulgare</i> var. <i>hexastichon</i> Aschers.</p> <p>1) 식물의 기본 정보</p> <p>-재배작물로 전국에 분포한다</p> <p>-보리에 관련한 속담 - 보리 앞의 폭이 좁고 짧은 해는 큰 눈이 있다. 보리 싹이 나온 후에 예년보다 추우면 보리 앞의 폭이 좁아진다. 이런 해는 추운 겨울이 되고 서해안 지방은 대륙성 고기압의 발달로 큰 눈이 오는 경향이 있다.</p> <p>2) 풀피리 부는 법</p> <p style="text-align: center;">보리피리 불기</p>  <p style="text-align: center;">그림 - 11 보리로 피리 불어보기</p> <p>보리피리는 역사가 가장 오래된 풀피리의 하나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풀피리였지만 지금은 도시화되면서 보리피리를 부는 것을 볼 수는 없다. 보리가 주식에서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보리피리를 불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도 줄어들고 있다. 보리피리는 이삭이 나오기 전의 보리를 사용한다. 갈대잎 같이 둥글게 말린 잎(중앙에서부터 늘어진 둥근 잎)을 떼어낸다. 그리고 원래의 모양대로 다시 말아서 밑쪽에서부터 입에 물고 분다.</p> <p>또는 늘어진 이삭줄기를 마디가 없는 곳만 4-5센티로 자른다. 한 쪽을 가볍게 누르고 누른 쪽을 입에 물고 불어본다. 민들레피리와 같은 원리이다. 또 하나는 늘어진 이삭줄기를 뽑아서 이삭을 마디 바로 위에서 잘라낸다. 마디에 가까운 쪽에 손톱으로 1-2센티 길이로 금을 긋는다. 마디가 없는 쪽에서 불면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 금을 넣은 쪽에서 부는 방법도 있다. 아무튼 이 금을 넣어서 부는 방법이 일반적인 보리피리 부는 방법인 것 같다. p.49-p.50</p>			
참 고 문 헌	유영초, 『풀피리 전승예술 조사연구』, 봄나무, 2005.		

## 7. 종합평가

### 1) 전수자 평가

-전수자 평가는 모든 과정을 마친 후 간단한 설문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전에 상·하반기 전수를 마친 후 나누기 시간을 통해 전승예술과 환경교육의 결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 (설문의 내용을 옮김)

① 참여 동기 :: 전수자들 대부분이 풀피리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갖고 있었으며, 풀피리를 현장체험에 응용하기 위해서라기보다 풀피리에 대해 알고 배우는 것에 더 큰 목적을 두었다.

☉자연물을 이용한 소리를 간접히 배워 보고 싶었다. 그리고 어린이 체험 환경교육에 배운 내용을 적용하면 살아있는 소리를 아이들에게 들려 줄 수도 있고 아이들에게 부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보다 생생한 현장체험 환경교육이 될 것 같아서

☉풀피리에 대해 알고 배우고 싶어서

☉나뭇잎 한 장으로 곡을 연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우리 민족 전통의 소리를 공유하고 싶어서 참여했다.

☉풀피리 연주를 듣고 좋은 느낌을 가졌던 경험이 있는데 마침 직접 풀피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참여하였다.

☉주변 사람에게 소개를 받고 풀피리로 연주 할 수 있다는 것에 호기심을 느껴 배워보고 싶었다.

☉우연한 기회에 지인의 소개로 참가하게 되었다.

② 교육내용 및 강사 :: 전수를 받았던 곳이 포천으로 전수생들의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오고 가는 시간을 부담스러워 했지만, 무형문화재로부터 직접 연주도 듣고 전수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만족을 표현했다. 또한 오전 시간을 이용하여 광릉 등 인근의 숲을 찾아 식생 조사와 풀피리 연습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 역시도 만족도가 높았다. 그러나 전수의 특성상 전수과정이 매뉴얼 화 되

어 있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표현했다. 또 풀피리전승예술조사연구 자료집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③ 현장에서의 응용 :: 「풀피리 지도력 전수프로그램」 전수자들은 자랑할 만한 실력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할 때 풀피리를 직접 시도해 보았다. 그 방법이 다소 즉흥적이고 비정형화 되어있지만, 시도해 본 결과에 만족하였다. 사례는 아래와 같다.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현장교육을 하면서 때마다 보이는 나뭇잎을 가지고 부는 방법만 흥내내보도록 하였다. 겨우 소리만 났지만, 아이들이 흥미로워했다.

◎초등학생들과 함께 풀피리를 불어 보았는데 아이들이 매우 신기해하고 재미있어했다.

◎제대로 곡을 연주 할 수는 없으나 풀이나 나뭇잎을 양쪽 엄지손가락 사이에 끼워 입에 대보고 불어본다. 대나무와 버드나무는 가지 속을 비우고 대롱을 만들어 입에 대고 불어보고 사철나무는 잎을 말아 불어 보는 등 풀피리를 부는 방법을 달리하여 몇 가지 시도해 보았다. 정확한 음정이 나오지는 않지만 뽁뽁- 소리가 나는 것만으로도 피교육자들은 충분히 흥미를 나타내었다. 교육자가 제대로 된 곡을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현장에서의 호응도가 매우 높을 듯 보인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숲 주변의 나뭇잎을 따오게 하여 입에 대고 불게 한다. 삐-하고 작은 소리만 나도 매우 신기해하고 재미있어 한다. 가족들을 대상으로는 습지에서 잘 자라는 버드나무 가지를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숲 해설시 적당한 크기로 잘라 비틀어 벗겨 버들피리를 제작한 후 피리를 불어본다. 어렸을 때 경험이 있는 성인들은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즐거워했고 어린이 들은 직접 피리를 만들고 불어보는 과정을 신기해하고 즐거워했다.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름 캠프에서 텃밭 체험을 할 때 여러 가지 곡식과 야채를 체험하고 밭과 들길에서 만나는 풀들과 나무 만나기를 통해 풀피리 불기를 했다. 아이들은 우선 풀잎에서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신기해하고, 노래까지 연주 할 수 있다는 것에 강한 호기심을 보여서 계획하지 않은 시간을 투자해서 풀피리 불기를 했다. 이후 아이들은 캠프장에 있는 동안 내내 풀피리를 불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④ 전수를 받을 때 어려웠던 점 :: 풀피리를 배우는 전수 장소가 멀어 하루를 꼬박 할애해야하는데 전수자들이 부담을 느꼈다. 그리고 풀피리 소리가 잘 나지 않아 자신감이 떨어지고 흥미도 감소하였다

Ⓢ 끝임 없는 자기 노력 없이는 득도 할 수 없는 프로그램으로 자기와의 싸움인 듯 싶고, 수업 장소가 너무 멀어 다니기 힘들었다.

Ⓢ 장소가 너무 멀어서 가고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 폐활량이 부족하여 소리가 쉽게 나지 않았다. 나뭇잎이 조금만 두꺼워도 소리가 나지 않아 얇은 잎으로만 연습하다보니 쉽게 찢어져 버려 깊이 있는 소리를 낼 수 없어 많은 것을 시도하기가 어려웠다.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 소리가 잘 나지 않아서 어려웠다. 배우는 장소가 멀어 프로그램을 위해 이동해야 하는 시간이 너무 길었다. 소리가 나기 시작한 후에도 음정을 연주하기 까지는 어려움이 커 깊은 좌절감을 느끼게 되었다.

Ⓢ 개인 연습량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하루에 오분 십분 썩 시간을 내어 연습을 한다는 것이 제일 어려웠다. 좀 더 열의 있게 단 몇 분이라도 습관적으로 연습을 했더라면 한 곡 정도는 연주가 가능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⑤ 프로그램 시 좋았던 점 :: 풀피리 무형문화재와 함께 풀피리 연주도 감상하고 자연과 가장 가까운 소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고 들을 수 있다는 점과 오전에 광릉 숲 등을 찾아 풀피리를 연습과 더불어 식물들을 만나 볼 수 있었던 것에 흥미를 표시했다.

Ⓢ 풀피리를 배우는 곳은 멀었지만, 일찍 출발하여 광릉 숲에서 오전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았다. 그곳에서 봄이 오는 광릉을 관찰 하고 숲 속에서 풀피리도 연습하는 귀한 시간을 보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 광릉 숲과 무지렁이 골 등 인근의 숲과 산을 두루 살펴보며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숲을 지켜보는 기쁨이 컸다. 그리고 그곳에서 더불어 계절과 풀피리에 관한 이야기는 현장에서 풀피리를 응용할 수 있는 팁이 되었다.

㉞ **풀피리를 연주하고 연습**하는 것도 좋았지만, 무형문화재 오세철 선생님의 인생이야기나 무형 문화재의 철학을 더불어 배울 수 있어 좋았다.

㉟ **아이들과 수업을 같이 듣고** 또 아이들에게 풀피리도 배울 수 있어 더욱 흥미로웠다.

㊱ **가장 좋은 계절**에 풀피리를 배울 수 있어 정서를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다.

㊲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의 숲 해설에 대한 반성과 자기비판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앞으로의 숲 해설이나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서로 배우고 달라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지니게 되었으며 더불어 의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⑥ 「**풀피리 지도력 전수 프로그램**」과 **환경교육의 결합방안** :: 전수자들 모두가 풀피리(전승예술)와 환경교육의 결합으로 새로운 아이টে을 개발하기를 원했으며, **대안적인 환경교육과 현장 활동을 위해 여러 의견을 제시해주었다.**

㉞ **풀잎으로 능숙한 소리**를 내는 프로그램은 현장에서 쉽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민들레 피리, 버들피리 등을 현장에서 만들어 소리를 내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물론 지금도 이러한 것들이 진행되지만, 풀피리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전승예술에 대한 내용이 첨가되어 더욱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㉟ **단순한 풀피리를 주제**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다른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풀피리 소스를 넣는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㊱ **단시간에 풀피리를 부는 것**은 원시적인 소리는 가능하겠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안 될 것이다. 우선 대중과 떨어져 있는 풀피리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숲 속에서의 연주회 등을 통해 숲을 찾은 사람들에게 풀피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도록 돕는 것이 좋겠다.

㊲ **가까운 숲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풀피리 전수가 진행된다면 좋을 것 같다. 지금도 포천의 몇 학교에서는 방과 후 활동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그것은 보다 강제적인 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변의 가까운 숲에서 꾸준한 강습을 한다면 점차 풀피리를 볼 수 있는 사람도 늘고 이에 대한 관심과 사랑도 커져 갈 것이다. 사람들이 풀피리에 흥미를 갖고 있다는 것은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그러나 그 흥미가 오래도록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다.

☉ 숲 체험을 할 때 풀피리를 부는 것을 즉흥적이거나 산발적으로 낄지 말고 풀피리 소리가 비교적 쉽게 나는 풀을 이용하여 해설도 하고 풀피리도 붙여 보는 것이다. 또한 도감 그리기를 할 때 오감을 살려서 나무의 특징을 기록 할 때 풀피리를 붙여본 후 그 소리나 느낌을 적도록 유도하면 좋겠다. 그리고 풀피리 연주를 숲에서 들려줌으로 해서 숲과 음악이 만나는 예술적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⑦ 「풀피리 지도력 전수 프로그램」을 주최한 풀빛문화연대에게 건의하고 싶은 내용 :: 아래와 같다.

☞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었으나 개인의 불성실함으로 뜻을 못 다 이룬 것이 아쉬움을 남는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도전해 보고 싶다. 풀피리 프로그램이 크게 호응을 받지는 못했지만, 함께 전수를 받았던 사람으로서는 정말 훌륭한 프로그램이었다고 자부한다. 꼭 풀피리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며, 꼭 다시 도전해보고 싶다.

☞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기에는 장소가 너무 먼 것 같다. 강사초빙의 형태로 풀피리를 꾸준하게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

☞ 좋은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 감사한다.

☞ 미흡한 실력이지만 현장에서 직접 시도해 보니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 좀 더 연구하여 신선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면 현장에서 풀피리 등의 전승예술을 적용하는데 더 효과적일 것이다.

☞ 프로그램은 끝났지만 이 전수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인근 산에서 풀피리 연습을 함께하면 좋겠다.

☞ 풀피리를 배우면서 동시에 풀피리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풀피리를 배우면서 소리가 나는 과정, 변화의 성과들을 지속적으로 알린다면 홍보도 되며, 동기부여가 될 것 같다. 주최하는 단체로서 풀피리전수에 참여한 전수생 조직을 관리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도 필요하다.

⑧ 「플피리 지도력 전수 프로그램」을 후원한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에 건의하고 싶은 내용 :: 아래와 같다.

☞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은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후원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이 사회에 공헌하는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환경에 더 많은 관심과 후원을 기대하는 바이다.

☞ 플피리 지도력 전수 프로그램은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었다. 숲 해설에 사용해보니 관심 갖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앞으로도 이렇게 다양하고 새로운 개념의 프로그램을 많이 지원해주면 좋겠다.

☞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나 개인들을 위한 커뮤니티를 만들면 좋겠다. 어떤 지원 사업들이 어디서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 서로 협조를 구하거나 정보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이 없다.

## 2) 플빛문화연대 프로그램 평가

### ① 프로그램의 진행

▪ **대상자 선정** : 「플피리 지도력 전수 프로그램」은 국내 지도자 양성 지원 프로그램으로 각 환경교육 단체 활동가 및 개인 활동가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현재 각급 단체에서 진행되는 교육과정에서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역량 발휘를 할 만한 재교육 프로그램이 없다고 판단할 때 「플피리 지도력 전수 프로그램」은 보다 대안적인 프로그램이며 현장 활동가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으로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환경교육자를 교육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적절했다.

▪ **홍보 및 모집** : 대상자 선정 후 각급 환경단체나 체험교육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시행 3주전인 4월 4일 모집 공고를 냈다. 홍보시점은 적절했고 3주간의 기간은 다소 짧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기간이 짧아서 예상인원을 충족할 수 없었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진 않는다. **예상인원을 충족시키지 못한 원인은 플피리에 대한 활동가들의 새로운 인식 부족과 1년의 커리큘럼 및 교육비에 대한 부분**

이 활동가에게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대안** : 모집인원이 예상인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강의를 진행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교육장을 포천으로 옮겨 매주 한번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하였다. 마침 오세철 선생님이 포천 영평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마다 특별활동을 맡아서 진행하셨다. 우리는 영평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풀피리를 배우고 있는 교장선생님과 진행을 맡고 있는 교무부장 선생님과 상의를 통하여 우리 전수자들이 영평 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풀피리를 배울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

▪ **참여도** : 초기 전수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실무자를 제외한 전수자 인원이 12명이었으나 회가 거듭될수록 개인 사정 등의 이유로 불참을 했고 풀피리 실력이 눈에 띄게 늘지 않게 되자 점차 흥미를 잃었다. **개인의 노력이 절실했지만, 전수를 받는 시간 외의 연습량이 적었다. 따라서 과반수가 탈락되었다.**

▪ **진행 상황** : 이동은 주로 카풀을 이용했다. 매주 오전시간을 이용해 광릉 숲을 찾는 등 자료 조사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한명의 전수자만이 대중교통을 이용했지만, 거리가 멀어서 지각과 결석이 잦았다.

## ② 프로그램 내용

▪ **교육 기간** : 상반기 10주와 8주간의 개인 자료 조사 및 연습기간 하반기 6주의 과정으로 전수가 진행되었다. 일 년 과정에 전수자들이 부담을 느꼈다.

▪ **교육 내용** : 교육 내용은 크게 전수와 실내강의로 나눌 수 있다. 상반기에는 현장을 중심으로 전수를 진행하였고 하반기에는 상반기 체험을 바탕으로 한 이론 강의 및 워크샵으로 전승예술과 환경교육의 결합 방법에 대해 진행하였다.

▪ **강사진** : 풀피리 무형문화재 오세철 선생님께서 풀피리를 전수 받을 수 있었다. 풀피리에 대한 깊이 있는 인생이야기와 함께 풀피리전수를 받을 수 있었다. 잊혀져가는 우리 전통의 예술에 대한 전승과 그에 대한 노력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③ 수강생 현황 및 분석

함께 폴피리를 배운 실무자를 제외하고 초기 모집인원은 12명이다. 수강생들은 순수하게 폴피리에 대한 흥미와 전수에 프로그램 참가 동기가 높았고 전수 프로그램 참가 후 폴피리를 환경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수강생의 분포는 숲해설가가 가장 많았고 기타 직간접적으로 현장체험활동을 수행하는 관련자 들이다. 이 사업 목적에 부합되는 교육대상자들로 꾸려졌다고 평가되지만, 기본적으로 수강인원이 부족하며 따라서 선의의 경쟁을 통한 교육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 ④ 프로그램의 성과 및 개선할 내용

이번 프로그램은 전수라는 특성상 개인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폴피리 연주에 대한 개인적 성과는 차이가 클 것이다. 그러나 전수자 모두가 폴피리에 가까이 다가갔으며 폴잎에 대한 애정이 새로워졌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미하지만 ‘폴피리에 대한 시도’에 큰 의의를 두겠다. 이들이 현장에 나가 환경교육을 할 때 다소 산발적이고 즉흥적이거나 폴피리를 함께 붙였을 때에 피교육자들의 반응으로부터 폴피리에 대한 높은 가능성을 통해 동기부여를 받았다. **보다 질 높은 환경교육을 위해 우리 전통의 예술에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고 이것이 보다 효과적인 환경교육으로 가는 길임을 인식하였다.**

다만 폴피리에 대한 홍보가 많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홍보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폴피리와 같은 전승예술이 현대에 미치는 효과와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나아가 이러한 전승예술이 현대의 환경교육과의 어울림 속에서 성장하고 꾸준히 전승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는 이번 프로그램의 전수자들이 현장에 이뤄나가야 할 몫이다.

### 3) 종합적인 평가

한 알의 도토리 속에 참나무가 들어있고, 수천만 평의 숲이 내재되어 있다. 이것은 어떤 성과라고 할지라도 그 출발의 단초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과정에 결과가 이미 들어 있다는 의미이다.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작은 성과라도 착실하게 단초를 쌓아가는 일이 중

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혹자는 우리가 진행해온 풀피리 지도력 전수 훈련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큰 성과가 없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내용이 부실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외형만으로 평가하는 편향된 시각이다.

우리 풀피리 지도력 전수 훈련프로그램의 많은 아쉬움에 불구하고, 참여자들은 한국의 환경교육의 현장에 전통예술 분야를 접목시키려는 시도하나만으로도 평가받을 만한 일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숫자적 의미로서 통계적 의미로서 풀피리지도력 전수훈련프로그램은 실패한 사업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번 사업의 작은 한 알의 도토리가 싹을 틔워 한국 사회의 환경문화의 새로운 트렌드를 조성하는 숲이 된다면, 그것은 커다란 성과가 되어서 보답할 것이다.

지난 일 년 동안의 이 풀피리지도력 전수사업을 통해서 실제로 풀피리를 현장 교육에 접목하여 실천해나갈 수 있는 전수자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초기 수강생들조차 대거 탈락한 채 이 사업의 수혜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작지만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듯이 이미 **풀피리를 숲해설과 현장 교육에 접목해나가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해가고 있고, 학교교육의 현장에서 접목시키기 위한 교사교육으로 거듭나고 있음은 이 풀피리 사업의 성과들이 착실하게 나누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적으로, 숲해설의 현장에서 이번 풀피리전수훈련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우고 익힌 **풀피리연주역량을 발휘하는 수료자와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초보적인 풀피리 지도력을 배양하는 능력과 이론을 전수해주는 수료자가 있음**은 작은 성과로 큰 나눔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향후 이 풀피리 사업은 수십만 명의 아마추어와 매니아들이 활동하는 “오카리나 동호회” 처럼 **“풀피리 동호회”의 형태로 조직적 비전을 세워 나갈 수 있는 전망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평가된다.

특히, 풀피리 E-카드, 풀피리환경교육 매뉴얼 등을 통한 **콘텐츠 개발과 교재개발,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서 기존 개별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이 갖고 있는 일회성과 단편성을 지양하고 지속성과 확장성이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 할 수 있다.

물론, 홍보 전략의 부재, 전수 장소 등의 여건의 열악, 전수매뉴얼의 취약, 기본교재 활용의 미비, 수료자들의 열정과 각오 등의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어떻게든 시작한 작았지만 그 끝은 창대하리라는 비전을 보여주었다는 것이 이 사업의 전반적인 평가이다.

## 8. 강의 수료자들의 추후 활동계획

이번 사업을 통해 풀피리전수훈련프로그램을 이수한 수료자들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풀피리 지도력을 이용하여 풀빛문화 예술프로그램의 핵심적 요소로 활용할 것이다.

2005년 대통령이 참여한 “환경의 날”기념식 행사의 가장 핵심적인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풀피리 연주였다. 앞으로 풀피리가 풀빛문화의 트렌드를 조성해나가는 주요 동력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갈 것이다. 풀빛문화연대의 경우 “그린 아트 페스티벌” 같은 환경문화예술 축제를 기획할 때 가장 핵심적인 프로그램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숲해설가나, 현장체험학습 지도자들의 경우는 숲해설과 현장체험프로그램의 일상적이고 즉흥적인 강의 콘텐츠가 될 것이다. 그리고 풀피리를 일정 수준 이상의 실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풀빛문화연대의 지원을 받아 풀피리 교실 등을 통해서 환경문화의 트렌드를 조성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학교교육의 특기 적성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초등학교 교사들의 모임인 학교숲생태교육연구회 등을 통해서 교사교육이나 직접적인 어린이들의 풀피리 지도방안을 강구하여 풀피리 교실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풀피리라는 자연악기는 역사적이고 통시적인 자연예술이자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민중적이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 풀뿌리들이 연대가 가능한 정서적 환경적 토대가 마련된 예술 분야이다.

풀빛문화연대의 경우 이 풀피리를 통해서 환경 생태문화교육의 국제연대와 교류협력의 요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일본의 경우는 이미 전국적으로 수많은 풀피리동호회들이 활동하고 있고, 이 풀피리를 환경교육의 현장에서 핵심적인 매개가 되고 있다.

일본은 우리처럼 무형문화재라는 제도로서 지원하는 장치는 없지만, 전국적인 풀피리 네트워크를 통해 풀피리가 대중화되었고, 환경교육의 매개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연주되고 있는 풀피리의 예술적 기량으로 보면 한국의 무형문화재들의 상대적으로 돋보이는 측면이 있지만, 대중적 보급의 측면에서는 우리가 훨씬 뒤져 있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이 사업의 수료자들과 현재 태백, 수원, 광주, 경기 일대에 활동하고 있는 전문연주자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활동방향을 모색하고, 국제 연대활동은 물론

**풀피리의 대중화작업을 통해서 환경교육역량의 배양은 물론, 한국사회의 새로운 풀빛문화의 트렌드를 조성해 나가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의 지원사업 수혜단체인 우리 풀빛문화연대와 사업의 수료자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좀 더 알차게 결실을 맺도록 노력할 것이다. 8개월이 넘는 긴 기간 동안 전수훈련프로그램에 열의와 관심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안을 함께 해준 전수팀원과 삽화 작업을 도와주신 세밀화모임(풀빛문화연대소속)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